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栗谷先生의 本領
—先生四百週年에際하야—

一

栗谷先生은 學者로 政治家로 文筆人으로 또 教育者로 朝鮮이 나흔 偉大한 人物中 하나다. 그의 功績도 이各方面에 다 偉大한것이 잇섯다. 그러나 栗谷先生의 本領은 그의 自己完成工夫에 잇다고 할것이오 이 自己完成工夫의 思想을 表現한것이 그의 實生活과 및 『擊蒙要訣』이라는 小冊子일것이다. 이 點에서 栗谷先生은 現代의 우리네에게까지 精神的生命의 關聯이 잇는것이다. 왜그런고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缺如한것이 自己完成工夫인 同時에 또한 가장 必要한것이 自己完成工夫이기때문이니 만일우리가 우리 先人에게서 思想的源泉을 찻는다 하면 그것은 三國時代의 國仙道와 栗谷先生의 擊蒙要訣만한것이 업슬것이다.

二

栗谷先生은 聖人主義者엿다. 個人의 生活目標를 聖人에 두엇다. 先生은 擊蒙要訣立志章에 『初學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라 하엿고 사람의『本性』은 한결가트니『眞知』를 알아서『實踐』하야 蕪穢를 버리고 『性初』만 회복하랴이면 누구나 다 萬善이 具足하야서 聖人이 될것이라고 하엿다. 이것은 佛家의 思想과 儒家의 思想을 合한 見解로서 實로 栗谷先生獨特의 發明이니 이것만으로도 思想史上에 重要한 事實이어니와 그가 다만 理論에 그치지아니하고 實踐을 主張한것과 眞理와 義理로서 人生의 目的을 삼을것이오 富貴와 安樂과 名譽로써 人生의 目的을 삼음이 不可한것을 痛論하고 이修道의 目的을 達하기爲한 方法까지 明示한것은 可謂一世의 導師라 할수잇슬것이다. 『凡百所好, 若不合理則, 一切痛斷, 不留苗脉然後, 吾心所好, 始在於義理. 而無可克』이라 한 『合理』라는것이 곳 眞意와 義理에 合하는 生活이란 말이니 眞理主義, 義理主義의 人生觀을 徹底한것이다. 【當正身心, 表裡如一, 處幽如顯, 處獨如衆, 使此心 如靑天白日】이라든지, 『當以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不爲底意思, 存諸胸中』이라든지는 決코 尋常道學者流의 입에발린 말이아니다. 이 萬古에 不易할 大教訓을 하는 栗谷先生自身이 『孜孜無怠, 斃而後已』의氣魄으로 畢生에 이를 力行實踐한데서 이 金言들은 더욱 비츨 發하는것이다.

三

栗谷先生은 다만 獨善的個人主義者가 아니다. 그는 『惠人濟物』이라든지, 『變化氣質』이라든지, 『善言誘掖』이라든지, 利己心을 絕하라함이라든지, 언제나 먼저 人格을 完成하는것은 他人을 指導하고 一鄕을 感化할것을 念頭에 둔것이엇다. 利己慾을 先斷하고 自己를 完成하고 他人을 誘掖하야 一鄕의 俗을 變하는것으로 興者의 任을 삼는다는것이니 이것이 仕取하기로 決定되엿다

議會會期短促으로 豫算案運命悲觀
停會中에 豫算案修正不可能
再停會奏請? 解散?

【東京電話同盟】豫算案및 稅制改革案의 修正案은 來十二日停會가끗날때까지 議會에提出하는것은 技術的으로 到底히不可能한狀態가되여 政府는다시 一週間乃至十日間의 議會停會를奏請치아니치못하게 될것으로보이는데 萬若停會를 奏請할境遇에豫算審議期間이 느저서 會期延長이 不得已케된다할지라도 議會의豫算審議決定은 每年三月三十一日로써 終了되는會計年度內에 限定되고 豫算決定을三月을넘겨 四月로넘어갈時에는 當然히 審議未了가되야不成立케되므로 그때에는憲法第七十一條에 依하야 政府는前年度 豫算案을 施行될터이다따라서 十二年度豫算을成立시키기爲하야는 아모래도三月末까지에 審議決定을 終了케하지안코면안될터인데 只今假令再停會를奏請치안코 來十二日부터 議會가 再開된다할지라도 三月三十一日까지에는 四十八日間밧게안남는다 그런데法律上許與되는豫算審議期間은 二十一日間으로貴衆兩院을合하면 四十二日을 要하고 이에 本會議上程日字로 보드래도 合計四十四日이라는 日字를 要케되므로 前記四十八日에서 四十四日間을 빼면 겨우 四日間만 限四日間을 넘지못하게 되는터로 萬若 이以上 停會를 奏請할時는 豫算案이 審議未了될念慮가 잇다고 보지안흘수 업는바 大藏當局의 事務的能力이 僅히 四日間再停會로서는 到底히 修正決定이 不可能이 된다고하면 十二年度 豫算案은 純事務的으로 보아도 成立不可能이되여 政府는 極히重大한 難關에逢着케될터인데 政府로서는 十二年度豫算案의 審議未了를避하는方途로서는 一、議會를解散하야 實行豫算을編成하든지 二、或은貴衆兩院의 可及的圓滿한 審議를期待하고 豫算案審議期間의 二十一日을 될수잇는대로 短縮하든가의二途를 나오지못하게 되는터로 後者는 議會가 열린다면 容易히 政府의 注文대로 안되고 더욱이 現內閣은 政黨出身閣僚가 하나도업스므로 政黨의對政府空氣가 惡化하고잇는 關係上 期待는 자못疑問이며 政府는 議會를 解散할는지 又는 審議未了를 覺悟하야 再停會를 奏請하든지하는 進退兩難에 陷入하야 그어느境遇에도 十二年度豫算案의 運命은 極히悲觀할 狀態에 잇게되는바 豫算審議에對한 政黨의態度는 非常히 注目될에이르럿다

므로 境遇에依해서는政府와의間에 正面衝突을 招來하야解散을 免치못하게되고 豫算不成立等意外의事故를發生할憂慮가만타 따라 이런境遇에는 政黨에諒解를 求하므로서 議會의無事打開를 할것인바 各政黨及貴族院各派에 對하여는 豫算削減方針을 述하고 그리고 豫算을修正할餘裕가 업다는것도 說明하고 政府의苦衷을訴하야 國家的見地에서 此를 容認하기바란다는旨를 懇請할것이라한다

藏省의再停會要求 首相의裁斷注目
閣內의意見아즉不一致

【東京電話同盟】大藏省內에는前內閣豫算案에 對하야 修正을行하기爲하야 다시約一週間의 停會가 事務的其他로보아 絕對必要하다는 論이擡頭되므로 政府도 議會를 다시停會할與否에對하야 愼重硏究를 進捗하고잇다 部內一部에는 議會의 豫算審議權을尊重하는 見地에서 다시停會를 行할것이라는 大藏省側의 要求에 反對하는意向을 表明하는것이잇서서 同問題에 對한林首相의裁斷은 자못注目된다 大藏省側의 主張은 前內閣豫算案을그대로 議會에 再提出하야 政府할 豫算案을 實施하고 다시 豫算額을 明示하야 貴衆兩院의 諒解를 求할時는 豫算總會는 本會議에서 議員으로부터 款項以下의 明細한費目에 關하야 質問을受할時에 答辯에 窮할것이므로 大體로 各省과의間에 豫算削減에關하야 裏面交涉을行하야 여둘必要가 잇스므로 一週間쯤의停會를 行하야 這間에 交涉을 進行할必要가잇다고 主張하고잇다 그러할때에 會期는貴衆兩院을 通한 豫算審議의最短期間인 四十二日에 不足을招來하야 議會의審議權을 侵害하게되고 兩院이 政府의希望에 副치안흘境遇에는 彈壓手段으로써其通過를 圖하지안흐면 안될터이

對政黨關係打開次 兩黨總裁訪問?
豫算案其他를圓滿通過코저

政府對議會策에腐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議會再開를 目睫間에 압두고 議會對策그中에서도 中島(政友)永井(民政)兩氏의 入閣拒絕로 因하야 政黨과의 間에 漸次險惡을 齎來하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對政黨關係의 打開에 적지안케 腐心하고잇는데 林首相을 爲始하야 各閣僚는 政府對政黨關係를 圓滿히하야 議事의 圓滑을期코저 對政黨工作에 될수잇는대로 努力하려고하고잇다 即首相側近者中에는 大藏省側의 要望을容認하야 議會가 再停會로 決定되는時는 議會審議期間縮少에 備하야 豫算案其他重要法案의 圓滿通過를 期키爲하야 林首相스스로 政民兩黨總裁를 訪問하고 大乘的見地에서서 議會協贊의 實을 들것을 要請하면 엇던가하는 議論까지 擡頭하야잇고 이에對한軍部側의 反對도 豫想되지안는바아니나 表面不即不離의 態度를 取하고잇는 政府側內部에도 政黨과 軍部와의衝突을 避키爲하여도 首相의協力을 懇請할 期待하고잇는便도잇슴으로 그推移는注目되여잇다

傳傑氏御婚約
滿洲國大使館發表

【東京電話同盟】滿洲國皇帝陛下御弟君溥傑中尉와 堂上華族의名門侯爵嵯峨公勝氏의 令孫浩子孃과의婚約에 對하여는 六日午後二時 滿洲國大使館에서 謝大使로부터左와如한 正式發表가잇섯다

滿洲國皇帝陛下御弟君陸軍步兵中尉溥傑氏는 目下 日本陸軍步兵學校教導隊附로 軍事를 御研究中이시든바 今般累代勤王의名門인 侯爵嵯峨公勝氏의令息實勝氏의 長女 浩子孃과 婚約이決定되여 陽春吉日을擇하야 東京에서 御結婚式을 擧하게 된것은 日滿兩國을 爲하야實로慶賀하는바이다

本庄男夫妻가媒酌

【東京電話同盟】溥傑氏와 嵯峨浩子孃의御婚儀는 今春吉日을選擇하야 東京에서 盛大히擧行될터인데 日滿의友好를 益益 鞏固히하는 이御結婚式에는 元駐滿全權大使關東軍司令官退役陸軍大將本庄繁男夫妻가 媒酌의勞를 取하기로 決定되엿다

栗谷先生生誕四百年에際하야
文一平

一

오늘은 栗谷李珥先生의 誕降四百年記念日이다. 先生은 李朝中宗三十一年丁未(西紀一五三六)十二月廿六日 江陵府北坪村인 그外家에서 나서 宣祖十七年甲申(西紀一五八四)正月十六日 京城大寺洞寓舍에서 도라가니 享年은 四十九歲이다. 仁者必壽라고하나 先生은 長命하지못하섯다. 그러나 先生의 남기신 발자취는 실로크다. 先生은 李朝五百年史에잇서 政治上學術上할것업시 偉大한一存在이다. 政治家로서의 栗谷李珥는 東皐李浚慶과 齊名하고 學術家로서의 栗谷李珥는 退溪李滉과 竝稱함을 보아도 알것이다.

二

儒教國인 李朝全體를 通하야 學者의 學에다 王佐의 才를 具備한 偉人을 求한다면 가장먼저 栗谷先生을 꼽아야 하겟다. 이것은 나의 私言이 아니라 自來世間에 이미 定評이 잇는바다. 儒教의理想이 哲人政治에 잇거니와 先生의理想도 역시 여기 잇섯스므로 出治의原인 格君心에 置重하엿섯다. 君心을格한後에 朝廷을 正히하려고 苦心努力하섯다. 經席의進言과 黨爭의調停이 모다 이格君心正朝廷을 爲해서 그리한것이다. 그러나 先生의理想은 하나도 實現되지 못하고 도리어 만흔 誤解를 바더 함아트면 先生의 身邊에 不測의禍가 미칠번 하엿섯다.

三

先生의政策은 生民을 救하는 前提로 먼저時弊를 革新함에 잇섯나니 時弊中의가장大甚한貢物은 根本的으로 뜯더고치고 郡縣의廢合을 斷行하야 行政費를 주리고 또直接人民의休戚에 기픈關係를가진地方官을 擇任하고 地方官을 監督하는 監司를 久任하야 아모쪼록 民治에 注重할을 力倡하엿스나 因循姑息하는 當時朝廷에서는 到底히 하나도 採用한바 되지못하고 말엇다. 先生이 主倡한中에 時弊革正機關으로서의 經濟司가튼것도 오늘날 外交調査機關또는 臨時議會와 彷彿한것으로 先生의創見에서 나온것이다. 그他國防의 變通策으로 奴隸贖良과 庶子通顯가튼것도 모다 一擧兩得으로時弊에 切中한者이다. 政治家로서의 先生은 時勢를 만들러고 하는 毅魄을 가젓다. 그러므로 先生은 항상 말하되 時勢는 在上者의 所造라고하엿다. 이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先生은 비록 中世式儒教政治家이나 그創見과 先見은 百世의師表가 될만한것이 잇다.

四

先生은 매양 南北의警이잇슬것을 深憂하야 武備의急務임을 力說하엿스니 일즉經筵上에서十萬兵을 云云하엿슴은 오늘날까지傳하는 有名한 이야기어니와 先生先見의 明이 어떠하엿슴은 이一例로서도 推察할것이다. 우리는 先生을 追慕하는義로써 先生誕降四百年紀念日을 맛는다.

先生이 主倡한中에 時弊革正

前英皇帝윈자公 四月에御結婚式

【倫敦六日發同盟】英國前帝윈자公은 四月二十七日 심프손夫人의離婚判決確定을어더 同夫人과 御結婚하실 御意向이라고 傳하는데 六日데일리엑스프레스紙는 左와如히 報道하엿다

윈자公은 마침내 四月심프손夫人과 維也納近郊헨체스펠트城에서 御婚儀를擧行하기로되여 御弟 켄트公, 그로슈터公은 이미御招待狀을 受하엿다

赤色將校處刑으로 蘇聯國內情勢惡化

【왈소우五日發同盟】赤色論壇의第一人者 라데크氏가 重刑에處하게되며 소코니코프外務人民次長等 領袖가 一括로 銃殺된 結果 蘇聯邦內의 情勢에 對하야는 流言蜚語가 連續的으로 流布되고잇는데 波蘭 半官機關아데通信社의 報道에 依하면 獨裁官 스탈린書記長과 國防人民委員 보로시로프元帥間에 同次長도와체프스키ー元帥外赤色將校十九名處分을 圍繞하고 드듸여正面으로衝突하게되엿다한다 도와체프스키ー元帥를비롯하야赤色將校十九名은 트로츠키ー派陰謀加擔의 嫌疑로逮捕되엿다傳하는데 보로시로프元帥는以上十名의 釋放을 要求하엿다한다 萬若이것이容認되지못하는境遇에는 辭職할旨의 最後通牒을 發하엿다한다 元帥가辭職하는境遇에는 極東赤色司令官 브류헬將軍이 國防人民委員에 任命될것이라하는데 他方莫斯科 레닌그라드各地로부터 歸來한旅客의 見聞에依하면國內情勢는 逐日惡化하야 莫斯科駐箚各國外交官領事及新聞特派員에는 게·페·우의 特別護衛가 配置되엿다한다

亞細亞勞働會議案
國際勞働理事會報告書를檢討

【쥬네브五日發同盟】國際勞働理事會代表 北岡壽逸氏外 亞細亞大陸各國代表는 五日午後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고 亞細亞勞働會議案에對하야 理事會報告書를 檢討한結果 各其 本國에 請訓하기로 決定하엿다 報告書要旨는 左와如하다

一、日本 印度 中國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락 暹羅等 亞細亞各國及 英, 米, 佛, 和蘭 各植民地를 招聘하야 東京又는 봄베이市에서 亞細亞勞働會議를 開催함

一、會議에서는 國際勞働機關에 亞細亞各國의 參加를 促進하는 具體案을 檢討하고 또國際勞働機關下에 亞細亞各國間의 常設勞働委員會를 設置함

人事·集會

▲洪淳彦氏(東洋劇場主)去月卅一日京都에서別世永訣式은九日午後三時於東洋劇場

▲藤謙次郎氏(鐵道局技師)洋行中이든바 五日歸任

地方稅改革案은 今議會에不提出
交付金은增額程度의辦法講究

【東京電話同盟】稅制整理案中地方稅改革及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樹立에對하야는 現內閣이 이를 그대로踏襲할지 그與否에關하야 五日結城藏相, 河原田內相間에 意見을交換한結果 右는 原則上으로 異議는 업스나 地方稅改革은 單純히稅制問題에도 끄치지안코 地方制度問題에도 關聯함으로 地方制度調查會에 依한 地方制度改革案이 樹立되는것을 기달리여 着手하는것이 適當하다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따러서 今議會에는 地方稅改革案은 提案하지안코 交付金制度와가튼것도 一年度에比하야 幾分金額을增加하는程度의 暫定的便法을 講究하기로될模樣이다

西北軍撤退後에 中央軍西安에入城

【上海六日發同盟】中央西安兩者間의妥協成立에 依하야 張學良軍 楊虎城軍은前線으로부터 撤退하는同時에 中央軍은 隴海西進하고잇스며 그先鋒部隊는 赤水渭南을 經由하야 五日夕陽西安東方二十五粁의 臨潼에 到着하엿다 舊東北軍은 隴海沿線으로부터 北方富平 高陵의線에後退하고잇는데 西安城은 撤退하는模樣이업서 中央軍도 衝突을避하기爲하야 十日頃까지 大體前進을中止하고 西北軍의 西安撤退를기달리여 西安에 入城하고저하는것이라한다

000897

共產軍、張楊軍協力 中央에積極抗戰
孫銘九五項目要求通電

【上海六日發同盟】西安第二次兵變에 關하야 其後西安으로부터 當地에 達한情報에依하면第二次兵變을 이르킨 孫銘九는 크데타開始와同時에 張學良軍各將領에對하야 通電을 發하야 左의五項目을 要求한것이 判明되여 西北急進分子의 完全한 赤化를 遺憾업시 暴露하엿다

一、共產軍 張學良軍 楊虎城軍은 三位一體가되여 어데까지 中央에抗戰할

二、張學良氏西安歸還의要求貫徹을期할

三、軒官을 一掃하고 十二月에 通電한 九項目의 要求를 貫徹할

四、于學忠氏를總帥에 繆澂流을參謀團主任에 馬占山氏를 騎兵指揮官에 推擧할

五、西安의 存亡을가치하고絕對撤退치안키를 誓約할

田代司令官 宋委員長과會見

【天津五日發同盟】中國駐屯軍司令官田代中將은 五日午後英租界私邸에 冀察政務委員長宋哲元氏와 會見하야 日中經濟提携에關하야 中國側의 積極的活動을 要請하는同時에 時局에 對한意見交換을 行하얏다 最近南京側의 策動으로 冀察政務委員會解消論까지 擡頭하야 來三中全會에서도 重要議題의 하나가될 것이라는데 宋哲元氏는 五日會見에서 日中提携에 努力할 旨를表明한 模樣으로 宋哲元氏今後의動向은 非常히 注目되는바 現地當局도 重大關心을가지고잇다

張學良氏의歸西
楊虎城、于學忠連名으로要望

【北平六日發同盟】西安에서의報道에依하면 楊虎城 于學忠兩氏는 四日 張學良의 歸西를 要求하야 左와如한 連名通電을發하엿다

余等은 現在過激分子를 彈壓하고 地方治安維持에 努力하고잇스나 張學良氏가 아즉西安에 歸還치안키때문에 將士는 모다悲境狀態에 處하엿다 願컨대即日 西安에 歸來하야 軍事를 管掌하기바란다 余等은 恒常中央領袖에게 服從하야 主張의 完成을期할것이나 目前은 오직 張學良氏의 西安歸還에 依해서만 善後措置를 取할수잇다

冀察政權首腦 中央服從表明

【北平五日發同盟】南京政府가三中全會에 冀察政務委員會 解消案을上程하고저함에 對하야 同委員長 宋哲元氏를 비롯하야秦德純氏等冀察政權首腦部態度는係히 重視되고 잇는데 宋哲元氏는 去月二十六日 秘書長戈定遠氏를代表로서 北中 現狀을 詳細히 報告하고 中央服從의 意思를 表明한 蔣介石氏에게보내는親書를 携帶南下시켯다고 確聞한다

貴院質問者 旣定대로續行

【東京電話同盟】林內閣初의 試鍊인 停會後 議會에對한 貴族院各派의態度에 對하여는 政府가 겨우 馬場財政의 修正을決定하엿슬뿐으로 아직 具體的政綱政策에 對하여는 何等 發表치안헛슴으로 明確한對策을 決定할수업스나 前內閣當時 各派交涉委員間에 協議한 國務大臣의 施政方針에 對한 各派의代表的 質疑演說은 新內閣에對하여도 何等 變更을加하지안코豫定대로 繼續하기로 決定하엿다 即研究會代表의 渡邊千冬子만은 前內閣當時 質疑를終了하엿슴으로 停會가끗나는同時에 阪谷芳郎男(公正) 小久保喜七氏(交友) 菅原通敬氏(研究)等諸氏가 이러나財政外交 人權問題等에 對하야 質疑할터인데 小久保 菅原兩氏는이미貴族院事務局에 이뜻을通告하엿다 阪谷男은 目下感氣로 自宅에서 治療하고잇는바 全快하기를 待하야 通告하기로되여 잇나 이에 繼續하야 大河內輝耕子 田中館愛橘博士(純無所屬) 園田武彦男(公正)內藤久寬氏(研究)水野錬太郎氏(交友)等의 諸氏도 이러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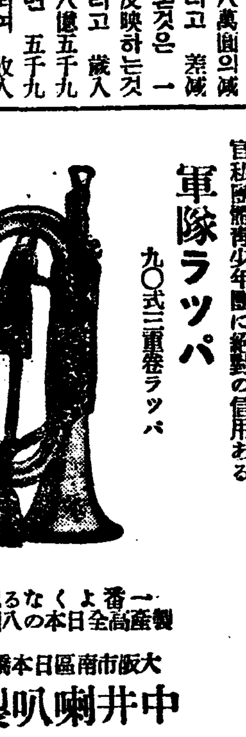
活況을反映하는 地方豫算
歲出十九億圓到達

【東京電話同盟】內務省地方局에서는 昭和十一年度地方豫算을集計하엿는데 六日 左와如히 歲出總額十九億一千八百二十六萬九千圓 歲入總額十九億一千九百五萬圓으로發表하엿다 歲出總額은 前年度當初 豫算의 歲出九百六十七萬圓의 增加를示하고 이를 各種目別로보면 土木費의二千四百五十九萬圓 教育費二千二百二十四萬圓 勸業費七百四十八萬五千圓 都市計畫費六百六十五萬圓 役場費六百十二萬圓 電氣瓦斯事業費 五百十二萬圓을 各其增加하엿다 前年度에는 低金利로公債費目에 잇서서는 前年度에比하야 四千三百四十八萬圓의減少를 招來하엿다 그리고 差滅에잇서 前記增加를 본것은 一般經濟界의 活況을 反映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歲入總額은 前年度의 十八億五千九百四十五萬圓에 比하면 五千九百五十七萬圓이 增加되여 收入에잇서 三千五百九十四萬圓 稅外收入에잇서 二千三百六十一萬圓이 增加되엿다

內務省豫算 社會施設相當削減

【東京電話同盟】河原田內相은五日閣議前 結城藏相과 會見하고 內務省新豫算編成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한結果 國民生活의安定策으로서 諸施設의實現및 給與增加를圖하는것보다 昂騰하는物價抑制가 先決問題라는結城藏相의 見解에併行하야 新規豫算을編成하기로되엿슴으로 土木豫算을爲始하야 各種社會施設에는 相當히削減을 加하리라고 觀測되다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초가루) 合成番椒粉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官私團體青少年團に絕對の信用ある 軍隊ラッパ 九〇式三重巻ラッパ 詳細カタログ呈營業者に限る ナカキオルガン、シレネギター、MNI管樂器、ハーモニカ製造卸 一番よく鳴る思勇印を製品全日本の八割を占む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喇叭製造所 電話五一二三番

全鮮에서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卸廉價提供 (新版カタログ送呈) 大阪市北區都島本通四丁目十二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一壹六八四番

精米機ポンプ 發動機噴霧器 (カタログ送呈) 大阪西區阿波座上通一 有光製作所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直輸入商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瓦斯熔接器 總ゆる金屬作業を最も簡易化する瓦斯熔接と切斷工法 新設購入の絕好機會 ◆特長ある製品の新らしい販賣方法◆ 要具一式組合せ大奉仕特價提供 カタログ進呈 專門製作 合資會社根津工業所 大阪市港區九條中通二丁目

うどん機械特價賣出 營業用大型 ウドンソバソウメン 一千五百圓까지 四十圓以上各種 家庭用輕便型 飲食店農家用 支那ソバ店用 五圓八十錢ヨリ 各種製粉機 味噌擂機 スルメ延機 噴霧器 大阪市港區市岡元町一ノ三 島根鐵工所卸賣部 電話西五七七四

大日부터入日까지 絕對特別名畫興映 每日 十時半 一時半 六時半 RKO라듸오超特作映畫 男裝 캐사린헵벤 主演 그어던女性보다도가장魅惑的이요 蠱惑的인 男裝! 氣品놉흔名作品 ◆M·G·M超特作映畫 男子奉制 쪼앤크로포ー드 프랑쵸 트ー운 主演 實明한여자가 妖艶한男性에게 던지는 戀의劇場! 近代的明朗家庭劇! ◆新興키네마超特作品 風流小唄侍 阪東妻三郎 主演 (來週九日封切)송本·노는流浪·世界 冒險全集·痪俠一代男 團成社

二月七日夜부터二日間 낫一時 밤七時始映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佛蘭西크리탈超特作 世界의마지막 全九卷 監督 主演아벨刃스氏 大名篇 가믈프라마리온天文學說의映畫化 大都映畫社超特作品 코릿드말프우氏 부론드오ー랴 살비움니ー드氏 ◆大都映畫社超特作品 뒷거리의歌 監督 土方雄氏 主演 大岡隆 大山デブ子 ◆日活 二月十一日舊正月初日封切映畫 赤陽의斷崖 突貫百萬弗 二月三日부터 劇團青春座公演第六週 悲劇 漢江물은 푸르것만 李雲芳作 三幕 漢江물은푸르것만! 失기만해도안타가워지는 시퍼런한강물은눈물과한숨실고 千年萬年두고흘러왓고 萬年後에라도흐르것만 이것인 人生! 더구나靑春, 그중에도 한숨어이하리! 作者李雲芳씨가 最大勢力을다한傑作으로애달픈靑春과友情과義理를 中心삼고가난한사람들의심정을그린것이다. 麻浦桃花町 桃花劇場 電龍三二三番

二月七日부터二日間 毎日晝夜二回公開 ◇鐵道省推薦 大東映畫 好事多魔 一幕三景 喜劇 舊正月一日부터 青春座特別公演 春香傳 府民館에서 劇團藝華船公演 歌劇長恨夢 東洋劇場에서 東洋劇場 ◇毎日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西部活劇 三大爆彈的大活劇篇忘年與行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肉彈總攻擊 全七卷 監督 알시ー젤드氏 主演 작크홀드氏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후이르로ー지ー氏 主演 메리뿌라이안氏 부룩쓰카보르氏 不二映畫社特作現代劇 鬧의銃聲 全七卷 競馬活劇 綠의騎手 全十卷 監督 中村熊二氏 主演 鈴木傳明氏 次週 世界의마지막, 뒷거리의노래, 서방님과수염 七日ヨリ九日マデ三日間公開 階下席十錢均一 新富町 新富座 電本2 四三 椿三四郎松浦築枝 主演 鐵の爪 後篇 アール·ケオ·オー社超特作 ステップィ·デューナ主演 松山宗三郎 三城輝子主演 邪神島 奇人豪傑三人旅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混合列車를 一掃코 『客』『貨』分離斷行

鐵道局의輸送難緩和對策

今秋부터 實施豫定

列車大增發

최근에이르러 부쩍 늘고잇는 회물과려객의 소화대책으로 철도국에서는 작년십이월에 『따이아』를 개정하야 려객차와 회물차의 대증발을 하얏스나 그래도 부족을느끼고 잇는형편임으로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기위하야 다시 렬차의 대증발계획을세워 수송난의 완화를 도모하기로하얏다 한다。

그내용을 보면 종래 지방의 혼합렬차를 일소한후 완전한객차와 『화물렬차』를단행할 방침아래 대체로 오는구월이일부터 회물렬차는 경성원산간(京城元山間) 룡산대전간(龍山大田間) 평양진남포간(平壤鎭南浦間) 경성인천간(京城仁川間) 정주안동간(定州安東間)등 지방의 구간렬차(區間列車)십삼왕복을 증발하야 정기렬차로할터이고 동시에 려객렬차도 지방의 형편에따러 십오왕복렬차를 증설키로될모양이라한다

遞信局에서 給費遞信生募集

체신리원 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에서는 다음의 요항에의하야생도를 모집한다

一、應募資格은 普通科第一部通信生은 滿十四歲以上 十八歲까지의 日本內地人 男子及女子로서 普通科第二部生은 滿十四歲以上二十三歲까지의日本內地人及朝鮮人男子及日本內地人女子로함

一、試驗은 第一部生은 四月五日、六日兩日、第二部生은 三月二十五日遞信吏員養成所地方遞信分掌局또는 郵便局에서執行한다

一、入學試驗은 高等小學校卒業程度로 國語 作文 算術 口述試驗 適性檢査及體格檢査等에 對하야 行함 但第一部生男子로서 中等學校卒業者에對하야는 國語及算術의 試驗은 省略한다

一、卒業後第一部生은 郵便局에 又第二部生은 郵便所事務員에 採用된다 養成期間은 第一部生은 一個年 第二部生은 七個月

一、在學中은 授業料를免除하고 手當金月額約十七圓乃至二十圓을 給與한다 修學上必要한 書籍等은 貸與또는 給與한다

犯罪언·파-레드 五日에四件連發

오일종로서에 체포된범죄언·파레드는 오일오후 한시반경 시내사직정(社稷町)백이십이번지압 공지에서 송히래(宋熙來)(三)는 방정회로 시내서대문정 일정목 일백십륙번지 화성정미소(和成精米所)에 백미한가마니를 주문하야 그상점원이 자전거에 그것을실고 집을 차즈려고 그것을 길가에둔사이에 자전거와함께 도적하야 다라나는것을종로서원이체포하엿다

▲충남론산군(忠南論山郡)출생으로 현재시내청진정(淸進町)구십록번지에잇는 고창원(高昌元)(一)은 수일전부터 시내가회정부근에서 유기세수대야를 훔치고다니다가 오일오후 종로서원에게 인치되엿다

▲류하정(柳下町)백삼십삼번지 상주상회배달부 (三種) 김종오(金鍾五)(三)는 신탄장사하는 도성의한사람은 상점의 련탄을 배달하려가는도중 시내 내수정(內需町)에서 종로서원에게발견되여 도적과함께 그서에인치되엿다

鳳山楚臥面과 山栗面에電燈

황해도봉산군、서종면(西鍾面)、초와면(楚臥面)、산률면(山栗面)에는 서선전기회사(西鮮電氣)에서 점등(點燈)하기로 되엿는데 대정봉은 약오백호에 달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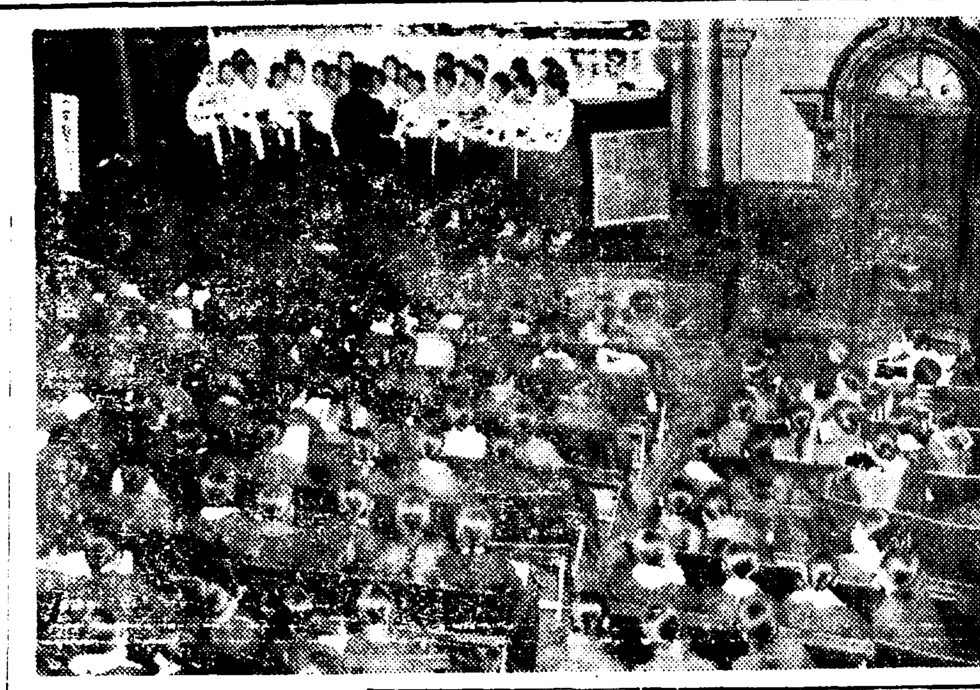
東部京城發展에 딸은 土地詐欺事件綻露

嫌疑者를檢擧取調中

수일전부터 시내 동대문서사법계에서는 무슨단서를 붓잡앗는지 평림(平林)사법계주임이하 형사총동원으로 각방면에 활동을 개시하야 현재 유모(兪某)와 허모(許某)외 일본내지인 조선사람 수명을 그서에 인치하고 엄중히 취조를 계속하고 잇스며 아프로도 그서의 검거 종은 일층 확대되리라한다 이제 그사건의 내용을 탐문하면 전기유모 허모 강모등이 공모하야 날로발전하야가는 동부방면(東部方面)의 토지를 미끼로 시내 일본부호들에게서 다액의금액을 사취한대사기사건인듯하다고하며 현재판명된금액만이 약삼만원이나되고 이사건의 관계자는 수십명에넘으리라고하야 그서의 활동여하가 대단주목된다고한다

鐵物竊盜

부내산수정(山手町)칠십일번지에사는 공장직공 박평천(朴平天)(二一)이는 사일오후 두시쯤 집아페머물러잇든 청엽정(靑葉町)일정목이십일호 리홍순(李興順)의 구루마에서 철물(鐵物)이백관을 훔처가지고 도망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



女子中等學校卒業生 慰安音樂大會盛況

시내 중앙보육학교주최와 본사학예부후원인 여자중등학교졸업생위안음악대회(女子中等學校卒業生慰安音樂大會)는 예정과가티 륙일밤일곱시부터 시내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열리어성황을 이루엇다한다(사진은동음악회광경)

實崇問題로 有志蹶起 經營對策을協議

六日午後八十餘有志會合促進會結成

實行委員十一名選擧

【平壤서本社特派員洪鍾仁電話】숭전(崇專) 숭중(崇中) 숭의(崇義)세학교의인계촉진회(引繼促進會)를 부내염전리(鹽田里)동화루(同和樓)에서륙일오후네시사십분부터각계유지팔십여명이모혀서열게되엿는데정세윤(鄭世胤)씨를의장으로선임한후위선그세학교경영위원들로부터 그동안 후계자를 물색하야 선교사측과 절충하야오든 경과를 듯기로하고 먼저숭중(崇中)교장이오숭중경영위원인 정두현(鄭斗鉉)씨를비롯하야 고한규(高漢圭)김동원(金東元) 량씨의 경과보고를들엇다 대개는 지금까지 신문에보도된바와가튼 내용의것으로서 결론에잇서서 정두현씨는 숭중을분리해서 경영하는것이 숭중의완전한 발달을위하는것이라고 밋는다는것을 말하고 숭전과숭중의 합동경영을 주장하는 유력한모재단에 대하야서는 그재단은 숭전만 경영하도록 하는것이 조켓다는 뜻을 가젓다 고말하얏다 그리고 그밧게 고한규 김동원량씨는 합동경영을하지안흐면 유력한 재단에서는숭전을 경영할수가 업다고해서결국은 숭전을구하는 방도로서는합동경영을 하는수밧게도리가업게되엇다고 말한후 끄트로 그유력한 재단이라는 것은 현재전기학교를 합동경영할만한 충분한 재단을가젓다고말하얏다。 그리하야 회의석상에는합동경영론의유리한 점과 분리경영론의불리한점이 일반에게 알리워지자 참석한유지들로부터는 장시간의 질문과의견개진이잇섯는바 결국은 그동안 세위원들이이상 세학교의 존속을 위하야 백방으로 성심성의를 다한활동을 한것에대하야는 십분동정과감사함을 마지안흐나 그러나숭전、숭중 두학교의 존속이 가장 큰 목표하에잇스매 지금은 거기에 의견의 대치와 파쟁적심리가 잇슬수가업는 일이라하야 대세는 합동경영이 유리하다는 결론에들어가서 다음과가튼 동의가성립되어 가부를 물은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이결의의 실행위원으로 다음의제씨가 피선된후 동아홉시이십분경에 폐회하엿다

▲決議 崇中까지 三校를 살린다는前提下에서 實行委員十一名을 選拔하야 具體工作을 하게하고 그報告에依하야 對策을求하기로함

實行委員氏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朴相殷 ▲李[illegible] ▲金性業 ▲金永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이문제에대하야 근일간 평양에는 시민대회를 열어 기세를 올릴모양이다

自衛消防 講習會盛況

경성소방서에서는 지난이월사일부터 륙일까지 삼일간 부내의 관공서、백화점、병원、회사、은행、공장등의 자위소방원에게 화방강습을하얏는바 각방면의신입이 쇄도하야 성황속에종료하얏다 주임관대우의 학교장이며관입등 한웨오십은 일년생이되어 책임자로서 각자가마튼화방(火防)책임을다하려고 열심히강습을바든것은 소방서로서 감격하얏다한다

아버지찻는 斷腸의搜査願

이역인육시장에서신음하는 賣笑婦最後의一念

타국하늘 만주 눈보라치고 인심조차 쌀쌀한 봉천(奉天)일판에서 인육시장(人肉市場)이라는 남다른 고계(苦界)에서 헐덕이는이땅의여성이 수명(壽命)도 매일 모래하는 병석에서 마지막으로단한번만아버지의 얼굴과 음성이듯고십퍼 아버지를 차저주시오하는 눈물의 수사원한장이 륙일아침종로서에 드러왓다는눈물의 주인공은 현재 만주국 삼강성 발리현발리성내(三江省勃利縣勃利城內)금복루(金福樓)에잇는 정춘심(鄭春心)으로 그의 편지내용을 보면 약일개월전부터 신병으로 알케되여서 지금 병상에 누어잇는데 병세가 악화함을따라서 생각나는것은 수년전 서로갈려진 아버지 정동석(鄭東石)의 그립지라고한다 그리하야 비록 원망스러운 아버지것만 그의 얼굴이라도한번보고 죽으려고 애썻스나 오래동안 소식조차 업는처지라차즐길이 막연한차에 수일전 우연히 의복장을 뒤추어보앗더니 소화구년시월사일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의 일부인이찍힌 아버지의 편지봉투가 나왓슴으로 그주소를 보앗스나 이미 오랜시일을 지난 봉투고연필로 쓴겉봉상 경성부 신설정(京城府新設町)까지는 히미하게 보이나 번지는 보이지안여 여나 아직、그곳에 잇스련니하고 생각하고 생각한끄테 전기와가티 경찰의힘으로 내아버지를 차저달라고 애원한것이라고한다 그리하야 그서 각(角)보은 수년전 그의편지에 크게감동되야 방금팔방으로 그의아버지의 주소를 찻고잇다고한다

木浦署員緊張 大活動을開始

某種重大事件發生?

【木浦】구세말을 압두고 목포경찰서에서는 비상경계를 하야오든바 지난오일부터 일층긴장을 정하야 다수한 형사대가동분서주하야 목포발렬차로 모랑면에 속속급행하고 잇다는바모처에 모종중대사건이 발생한모양인데이의 단서를 잡기에초점하고 잇다 벌서안동(安東)사건발생현장에 수사본부를두고 진범체포에 노력중이라고한다

松面青川間道路進展

【淸州】괴산군괴산면장 윤홍섭 도회의원 류청수(柳淸秀)량씨는 지난오일 도당국을 방문하고 송면청천(松面靑川)간 도로개축을 진정하엿다는데 송면~청천간의 도로가 개통된다면 괴산으로부터 상주까지의 도로가 개통되는것으로 그도로개설이 절대필요하다는바 전기 면장등은 도당국에 진정하엿스나 뭇지안흘수 으로 금번에와서는 개축공사는 못할지라도 실측이나 우선하여주기를 애원하엿는데 도당국에서도 고려를 언명하엿다한다

盈德郡民의活佛 三好氏의特志

【盈德】경북영덕군축산항(丑山港)상공회회장삼호좌태랑(三好佐太郞)씨는 여러가지 지방사업에도 종종을 집적조원을 만히하여오든바 특히작년도풍수해로인하야 먹을것과 입을것이업는동에 닥치오는 구변날을 당한군내 세궁민에게 단한끼이라도 따뜻한 음식을먹으면서 새해를마지하게하야 달라고 백미(白米)이백여 석가이 정원어치를 영덕군에 의뢰하얏스므로 동군에서는 씨의특지를 감사하는동시에 궁민조사와 분배방법에 몰두중이라하며 봄군으로서는 세궁민에대한 개인동정은 처음이라고한다

小爲替詐欺

륙일오후 어더시쯤에 부내견지정(堅志町)오십번지 조병만(趙秉萬)(三)의 양말제조소에 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청년이와서양말세커레를 일원구십오전에사고 이십원소위체를내주 십팔원오전의 거스름돈을 바더가지고 도라갓는데 조금잇다가 주인이소위체를자세히보니 일원짜리를이십원으로 꼿친것이엿슴으로깜작놀라 종로서에 계출하엿다한다

金日成一派에被襲된 四百移住民流離

嚴冬에家屋食糧업서

【新興坡】지난달이십오일오후열한시경에 유력한공산부대 김일성(金日成)의일대 약사십여명이 장백현십구도구관방자(長白縣十九道溝官房子)를습격하야 민가백여호에 불을질으고 곡식사백여석을 빼아서갓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그피해를입은 사백여이주동포는 엄동에 집도업고 호구책이 곤난하여 날부터대로 정처업는유리의길을떠나기시작한다고하는바사회의동정과현청의구제의손길이밋기만기다린다고 한다

鴨綠江水力發電 具體的調査開始

新義州某所에서

【新義州】압록강 개발의 모체인 선만공동기술위원회(鮮滿共同技術委員會)의 제이회위원회는오는 삼월상순 신경(新京)에서개최하기로 되엿는데 그대안은 一、鴨綠江水力發電에 伴하는 船舶의 航行關係 一、下流의 浚渫 一、護岸工事 등의 중대의안으로 현지인신의 주 모망면에 구체책조사를 명하야 와슴으로 불일 조사안을 총독부에 송부하기로되엿다한다

傷人强盜未遂犯 原州署에서逮捕

소사러갓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돌로머리를 따려너머트리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뜻을일우지 못한 상인강도를 지난삼일원주서에서 드듸여 체포하엿다

충북제천군송학면도화리(堤川郡松鶴面桃花里)에 거주하는 김정복(金正復)은 현금팔십원을넛코 지난달이십칠일 오후다섯시경 강원도원주군우시장(原州郡牛市場)에 소를 사러갓다 돌아오는도중 송림중으로부터 복면한사나히가나타나 머리를내라고위치며 단한상처를입고 뭇하지안코 인하의로 전기김(金)은 머리에대 가근처로도주하엿슴으로 강도는 목적을일우지못하고 어데론지그자최를감추엇는데 원주서(原州署)에서는 사법주임이하총출동하야 엄탐중 지난삼일 드듸여체포하엿는바 범인은 충북단양군매포면매포리(丹陽郡梅浦面梅浦里)에두고 원주군 보림면황둔리(原州郡補林面黃屯里七八)에거주하는 지성환(智成煥)이라고한다

바둑두는老人을 殴打致死한惡徒

家族이憤慨코告訴提起·留置中

부내 대도정(大島町)칠십삼번지에 사는 김청룡(金靑龍)은지난 일일 오후 열한시쯤에 대도정『공정』에서친구들과 바둑을두고잇섯는데 동리의 부랑자 김천만(金千萬)이가와서 댓자고자로 바둑판을 뒤집어놈으로 그를나무랏하엿든바 김천만이는 그자리에서 김청룡이를무수히 란타하야 인사불성이된것을 그의가족들이 대학병원(大學病院)에입원식혓든바 륙일오후일곱시에 드디어 절명하고말엇다한다 구타사건이나든 다음날인 이일에 피해자의고발로 김천만이는 룡산서에 류치당하여잇는데 김청룡의 가족이 격분하야 륙일밤룡산서에고소장을써가지고 왓다한다

王寺驛前丸星運送店總督者 진태일(陳泰一)(假名)이가 김의집에 업는틈타서 경성에와서 김의처 춘옥의방에서 야간일회한점과 전기진태일이가 일월삼십일경에도 경성역부근려관에잇스며 춘옥이와 매일밤열한시까지 외출한점으로보아 춘옥은 전기진태일을 정부로 삼고 잇다가 그만출가한것이아닌가하는 의심을 말하엿다한나

並木町에火災

륙일오후여덜시오십분경에시내병목정(並木町)시장(市場)안에잇는시탄상류중수(柳重秀)의집에서 불이나서 목조단층집한채 이호를전소하고 소방서원의 노력으로 동아홉시십분경에겨우진화되엿다 원인은 주인이 외출한다음에붙이 난것으로 방금소관서에서조사중인데 손해는 약천원 가량이라한다

동생의겨정사서 형이대신죽엇다

社稷公園에縊首自殺

부내루하정(樓下町)팔십일번지에거주하는 대동(大同)인쇄소직공 김순태(金淳泰)는 륙일오후 사직공원(社稷公園)뒤 활터근처 소나무에 목을매여 자살을하엿는데 원인은 자기동생이 오십원부채로 심려하는것을 보다못하야 세상을비관하고 그가티죽엄의 길을취한것이라고한다

舊歲末災貧民에 救濟米를配給

【金川】금천읍 송정영치(松井榮治)씨는 금삼백원을 내여 백미를사서 분배하겟다고 그조사 방법을 금천면과 경찰서에 의뢰하야 면마서에서는 방금조사중이라는데 이외가튼 미거에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한다

一般에게同情모아 貧民에게配給

【鐵山】평북철산군 철산경찰서와조선매신각신문지국협력으로 동정금을 일반에게 구하엿든바모인동정금이 일백이십사원에달하야 그간리재민을 조사하여가지고 지난이일에 당지 경찰서경내에서 백미두섬 청어한짐식을 배부하엿다고한다

栗谷先生 生誕四百年紀念

七日午後太西館서紀念會合

칠일(陰十二月二十六日)은 률곡리이(栗谷李珥)선생의 생탄사백년에 당함으로 이날을기념하기위해서 김원근(金瑗根)김완진(金完鎭)권상노(權相老)씨등외 다수명사들이 발기하여 칠일오후다섯시반부터 시내태서관에서 기렴회를 연다는바 회비는 일원오십전식이라고하며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률곡선생은 지금으로부터 사백년전 중종(中宗)삼십일년(丙申)에 강원도강릉군정동면죽헌리(江陵郡丁洞面竹軒里)에서 나서 세살에문자를알게되고 열세살에진사초시(進士初試)에 참례를하야 세인을 놀라게하엿스며 관직으로는만년에 우찬성(右贊成)호판(戶判)대제학(大提學)까지지렴임하엿스며 선생은 도학과문장으로 일세의사부가되여 저서로서는 률곡전서(栗谷全書)격몽요결(擊蒙要訣)성학집요(聖學輯要)사서언해(四書諺解) 경연일기(經筵日記)등이잇다

韓自斤先을 本町署에押來

작지기보ー시내본정서에서 지난이십팔일밤 동서관내 황금정(黃金町)삼정목 담배장사하는집에 침입한 강도범을 교사하엿다는 김모(金某)등을 체포하여다가취조하며 일방서대문서에서체포한공범자로직접행동을취한한자근선(韓自斤先)의인계를 청하엿든바오일오후 다섯시쯤에전기한자근선이룡탄시로 인계바든동서에서는김(金)경부보가담임하야 두명의취조를개시하고잇는데 그과김이각각량서에 체포되여 그들의 여죄를추궁하기에 곤난하든 이사건도점점 본격적 취조에드러가게되엿다한다

活氣띄우는雄基港

鍾紡、三井進出에 漁港까지新設

沈滯氣分을一掃할날도不遠

鼎立하는"北朝鮮三港"

【淸津】북조선삼항(北朝鮮三港)이라는 호화로운 이름을 가지면서도 교적허래을 입지못하다 웅기항(雄基港)에도 불은 차저온 어항(漁港)문제가 요사이에 이르러 갈수록 호전하는 기운이며 드듸여 래명년도부터는 사시에 착수케되리라한다 웅기항 발전에 업지못할시설 수산당국에서도 그필요를 인정한지오래나 웅기방 독특한 여러가지사정으로 오늘까지 실현을 보지못하얏스나 최근에이르러 문제 현저히 완화되야 압흐로는 될수잇는대로 기성항구(旣成港口)로서의 체면을 세우게되리라는바 어항문제도 대체로 수산당국의 방해를어떠 위치까지 웅상동(雄尙洞)으로 내정되야잇다한다 어항설비와아울러 전하고잇는 삼정계(三井系)의 대수산회사(大水産會社)의 진출이잇스리라하고 다시종방(鍾紡)의인견〃펄프〃(人絹펄프)공장도 대체로 내정되얏슴으로 새해의웅기항에는 일즉보지못하든 활기가떼틀것으로보인다 이로서 청진나 뇌보나하고 전도가자못한담하든 웅기항도 현안이하나식 풀리어 줄어갈것이라한다

副業에 軍手の製造

特長

第壹 僅少한資本으로着手할수잇다

第貳 製造方法은極히簡單하야女子나아해나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하다

第參 販路가大端히넓다

第四 完成된製造品은當所에서引受한다

第五 如何한山間僻地에서라도製造함에不便이업다

巨利益을바라지안코確實한收入을어더一家生活의安定을만들려하는분에게軍手의製造業을奬勵한다

昨今軍手의大需要期에드러製品大不足인때에一般의開始함에는絶好한機會이다

目下有利한條件으로直屬製造家 募集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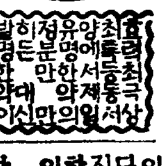
지금곳申込하는분에게는卽時製造方法書를無料로가르치고絲는供給한다

○左記近處의營業所로講習을照會次第

手製造의栞 을無料로急送함

全國購買組合聯合會御用達
株式會社和信連鎖店指定商
合名會社 朝日軍手製造所
大阪市旭區野江町一丁目京街道
東京市本鄕區元町貳丁目三ノ一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郵便所前

보음보양 처음어시는약 KAIZER 가이자ー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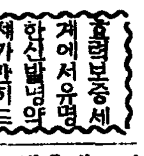


효력최고의 근본적 장생불로약

이자ー는 신체의쇠약한 조직을 소생시키는 보음보양강정약으로 지는명약이다 정력을 씩씩하게하는 명약이다

회춘병을 앓엇든지 하엿든지 선천적으로 몸이약한분 속히 가이자ー를 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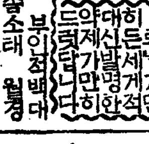
폐병 늑막염 부족증에 NAOPER 내오페ー 가제일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 잇스나정력이쇠하야 오래못살고 원기가왕성하여야 하고십흔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잇게하여야한다

폐병은 불치의난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대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 ...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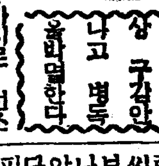
림질 대하증 냉병에 KUROBER 구로벨 이제일



효력국상 세계에서유명한 구로벨

남녀 만금성림질 대하증 냉병 ... 구로벨의특장 ...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매독엔 PROTER 푸로다ー 가제일



효력최고 상구감 나고 병독 을바멸한다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대 ...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어떠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제일은행옆)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京城版

悲運에는花島幼稚園
經營打開를講究
學父兄會서도蹶起

【仁川】 인천부 화수정(仁川府花水町)화도산(花島山) 언덕우에 고요히 소사잇는 주가미데서십이년동안 수만흔 어린이를 배양하야 주고잇든 화도유치원(花島幼稚園)이 경영난과 교사곤란에 빠저잇다는비보가 전하한인천교육계에 또다시 들려와다이제 동원의 력사를 회고하야보건데 동원은 기독교가 조선으로 전하야오든당시 각방면으로 학교또는 병원을 창설하야 일반적으로 적지안흔 사회적봉사를 하야오든때에 인천은 내리와 화도곳에 예배당이잇서오죽 선교부에의 교육하든곳이며 여잇고 교육계로는 오죽 영화(永化)남녀학교가 잇슬뿐이므로 당시 화도예배당 목사로 잇든조상훈(曺相勳)씨가 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에 선도의 후의를바더 동원을 창립하야 선교회로부터 매월이십원의 보조금을바다 경영하야오든중에 물연소화오년도로부터 보조금을 월오원으로내리자 이것으로서는 도저히경영하야갈수업는 비운에 빠저잇든것을 현원장 장기진(張基鎭)씨가 인수하야 보모의 희생과 부단의로력으로서 금일까지근근유지하야왓스나 유지는하여가나현재 외원사가 혜퇴하야 도저히이이상지지할수업는 형편이다 원장을 위시하야 학부형립기로원사신축비를 연출중이라는대 일반사회의 독지가에 뜻잇는성원을 세상에구하고잇다 한다

第二教育部委員會

경성부 제이교육부위원회에서는 오는팔일오후두시에 경성부청에위원회를 열고 출변도 중편보통학교입학문제외 초등과아동처리문제 기타를 토의할터이라한다

可恐할結核魔
昨年中百三十名死亡

【仁川】 병중에도 가장위험한것이 결핵병(結核病)일것이다 작년중인천부내의 결핵환자를조사하건대 발생이 이백칠십삼명에사망이 백삼십명에달하는 비참한수를점하고잇다는데 그중에환자의대부분은 조선인이라한다는바 자세한것은다음과갓다한다

結核患者 發生
朝鮮人 男八三人 女四八人
日本內地人 男四六 女三二
外國人 男一六 女一六
合 二七三

結核患者死亡者
朝鮮人 男五三人 女四一人
日本內地人 男一九人 女一二人
外國人 男 四人 女 二人
合 一三〇人

現在患者
朝鮮人 男一五二人 女一五人
日本內地人 男四四人 女二五人
外國人 男一六人 女一一人
合 三七六人

이라한다

優良町會表彰

경성부에서는 오는기원절(紀元節)에우량정회(優良町會)외표창식을 거행하고십오년이상 근속한정총대도 표창할터이라한다

죽은줄만알엇든愛息
鐵窓에서再逢春
開城署內人情劇一幕

【開城】 팍죽은줄만 알고미덧든 아들을 그자식이 지은죄로인하야 일년만에 찻게되고보니 부자관계의 무상한리합(離合)은 슬픔과 기쁨으로비저서 한때 극적장면을 이루게한사실이 지난사일개성서에 나타낫다

×

금천군서면하남리(金川郡西面下南里)오백사십팔번지 송건호(宋建浩)의 외독자 영하(榮河)(一七)소년은 평소에 좀정신이상이잇섯든바 그는작년음력정월초열흘날 표연히 무단 출가해서 그후 자출길이 업섯든동 그의 어머니되는 이씨(李氏)(四五)는매일밤 자식이 도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렷다 한다 그러나 오날날 가슴에서리칠을 풀길이업섯는데 어떤날 그곳면사무원에게 자식이 죽엇단말을듯게되엿섯다 이얼마나 절망의 단장비보(斷腸悲報)엿스랴? 고만이말에 미칠것가튼 아버지는 그후세상에 광명을일코 사는몸이 되엿고 어머니는 마츰내 심화병으로 병석에누어 자식의 일홈만불르며 신음하는 신세가되엿섯다 그러나 부모의 이만한 애정을 모르는 정신병자―"영하"는 "소변은 그후"롱펜"생활로가지로 흘러단이다가 지난 일월십일경엔 개성에 와가지고 주림을 참다못해 그날밤열한시경 부내 남본정(南本町)이백팔십구번지 최명길(崔命吉)집에몰래 침입하야 부엌에잇는 밥그릇(시가이원가량)한개를 절취해다가 모고물상에입질하려다 고만경찰에 체포되어이래 충전(沖田)부장외 손에 취조를 바더오든바 그는전과범도아니란터러이번 범죄도단순히 배가곱하 저즐는것이엇슴이판명되엿다 그러나 이것은 오예[illegible] 부자간의 [illegible]이니 그후개성경찰의 「자식찻지」외제공을할기연을며저준것이 가라는소식을바든 송건호는 지난사일 즉시개성서에 와가지고 철창속에서 업어나온 자식의몸을 어루만지며 기쁨에찬뜨거운 눈물을흘렷다 일년만에죽은줄미덧든 자식을찻는「이기쁨은 천하를주고도 살수업는 기쁨입니다」놀라고 그는감사의뜻을몃번이나 경찰에표한후"영하"를 때리고 고향으로 도라갓다 한다

過歲보다生途가업는
仁川의細窮民
約四百餘戶의多數

【仁川】 수출입면으로발전 또는 대공장의 진출등의 약진이천에 들려오는랑보는 꼬리를물고들려와 각방면의자본가는 일확천금의 몽상으로 밤가는줄도몰으고 기뻐하는반면에 움크린대말이나마 마세는커냥 조반석죽의 연명의 방도가업는 가련한 궁세민이전인천에 삼백칠십여호에 달한다이제 인천서보안계에서는 일종이종의 두부분으로 전인천궁세민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일종이 일백칠십일호 이종이 이백여호에달한다는데 일종은 수입이라고는 전여업는궁세민이요 이종은 다소수입은잇스나 생도가업는 비참한 궁세민이라 한다

日曜講話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行進의目標 金永燮 氏 / 午後七時 未定 李載院 氏
◇貞洞禮拜堂 午後二時半 하나님의사람 金永燮 氏
◇尙洞敎會 朝間 葡萄酒가업다 夕間 姜泰熙 氏 / 近調眠 姜泰熙 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務實 朴淵瑞 氏 / 午後七時 未定 김희운 씨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祈禱의要領 朴鍼亭 氏 / 午後七時 知的信仰 金鎭浩 氏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勉勵는靑年의所有 姜炳周 氏
◇基督敎會 阿峴禮拜堂 午前 神의人 崔善 氏 / 午後七時半 殉敎者를追仰 崔善 氏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宗敎生活의吟味 申公淑 氏 / 午後七時 未定 裵敏洙 氏

穀港仁川에도
米穀統制組合
勸業係에서創立準備

【仁川】 곡물수이출액이 년사천만원을돌파하고잇는 곡항인천은 실로조선의 곡항으로서 물지하고잇는만큼 일반농촌의흥망은 인천에가장큰영향을끼처주고잇는바 물연금번을당하야 총독부로부터 전선각항에 미곡상통제조합을 조직하라는지령이나리자 인천부권업계에서는 방금이조합창립사무에 분망하고잇다는데 조합원자격은 변수린고가 현미(玄米)로환산하야 오천석이상에달하는 업자로서 구별(區別)일만이만삼만사만오만등 등별로하야 조직하리라는대 동조합의 목적은 저장(貯藏)을하등미곡통제에 대한것이라 한다

月尾島水産試驗場
近日中에竣工
新年度豫算十一萬圓

월미도(月尾島)에 설치되는경기도수산시험장 (京畿道水産試驗場)은 이만원의 건설비로 공사를 계속하든중 얼마안되여 준공될터인데 직원은 장장(場長)이하 삼명 수부(水夫)가 명으로 이 달중에 전원의 임명을보리라하는데 동시현장에 백구환(白鷗丸)을 소속식혀 연안어업지도를하게하며 신년도에 십일만사천원을 계상하야 경조하는 시험선으로하여금 황해발해(渤海)의 어족(魚族)의 분포급회유(回遊)상태급 기타 어업의 시험을 대대적으로 행하게 되엿다한다

舊曆歲暮에
紅「卍」字施貧

오는팔일 (구력 십이월이십칠일)오전십일시에 부내옥인정(玉仁町)사백칠번지 세계홍卍자회조선주회구제부(世界紅卍字會朝鮮主會救濟部)에서는 전례에의하야 卍자회관앞광장에서 경성부북부방면오십개정(町)과 그밧게오개정(町)에 거주하는 세궁민 일천명에게 매인압 백미일두 (오승입)씩 배급하고 그중에 일백이십명에게 새솜옷아래 한벌과 양말한커리식을 정칠관과 각정총대(町總代)협회일에 배급하기로되엿다고하며 배급사항은 아래와갓다

一、區域 北部方面 六個町外 五町
一、白米 一石

僞造領收證을부처
鍍金비녀로詐欺
―前後二十回를轉轉犯行―
舞臺는開城、白川驛

【開城】 시가이백원짜리 순금지환(純金指環)의 『가짜』증명서오십매를 위조해가지고개성역과백천(白川)역을무대로이십회나부녀자들을 속이여 대금을사취한사나히가 개성서에 체포되엿다본적을 천안군성환면 성월리 (天安郡成歡面成月里)에둔김태진(金泰鎭)(三五)은작년 음팔월부터 엉뚱한 사기술을연구해가진후 즉시황해도 연백군홍현역전(延白郡紅峴驛前)에 와가지고 전기시장에서가짜놋비녀한개 (시가이십전)와 영수증을사가진후 다시배천역으로가 차에서내린후 주소미상의 귀부녀에게 이금비녀는 길가에서 어덧는데 오산월(吳山月)이란기생이 일백팔십원에산다는증명서까지잇스니순금잠에는틀림업는바 수고한갑만주면양도하마고 엉뚱한말을하며 현금사원을사취햇섯다 이자는 그후전기와가튼수단방법으로 세차례나돈을사취한후 홍현(紅峴)역에서또상회로 수십원의 대금을 사취해가지고 지난음력시월엔 기무대를 다시개성으로 옴겻섯다 그래서 그는부내남본정(南本町) 이경득(李慶得)과 최진성(崔鎭成)잡화상에서 전기가짜금색비녀여덜개를 사가지고 개성역에서 하차하는부녀들에게 전기와가튼수단으로 또여섯차레나 범행을거듭하여 대금을편취한후 밤이면 술거리에무처 거드러거리고 놀다가 악운이다하야 지난삼십일일 경찰에붓들녓다한다

"青年金玉均"과 "故鄕"出版記念

일즉이 본보에 련재하엿든민촌(民村)리기영(李箕永)씨작인 『고향』(故鄕)과 팔봉(八峰)김기진(金基鎭)씨작인『청년김옥균』(靑年金玉均)두편이 동시에 출판되엿스므로 박월탄(朴月灘)윤기정(尹基鼎)씨등외 문단시구이십여씨가 발기하여서 칠일오후여섯시부터 시내천향원에서 그출판기념회를 연다는바 회비는일원식이라고하며 만히 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今日의普校入學手續該當町

▲本廳管內=八日 館洞町 橋北町 紅把町
▲東部出張所管內=八日 下往十里町 上往十里町 杏堂町 馬場町 沂斤町 金湖町 鷹峰町
▲龍山出張所管內=八日 元町 一丁目 二丁目 三丁目 四丁目

校洞普校 基地擴張

경성부에서는 교동보통학교(校洞普通學校)용지 약일백팔십평을 매수할예산을 세웟든바 땅갑시올라서 그갑스로는 도저히살수업스므로 추가예산 약이천사백원을 요구하기로되엿다 한다

今日의運動

▲卓球=同德女高普主催 第一回 全朝鮮女子普通學校卓球大會 午前十時 同校卓球場

1937年 朝鮮氷上十傑
本社運動部編

世界舞臺에서 雄飛하든 氷上의三勇士를마지하야 三年後에 닥처올 第五回冬季올림픽大會를 目標로 그準備工作을 急急히할 一九三七年의 우리氷上界는 幾多의 劃時期的收穫을남기고 幕을다치엇다 例年에보지못하든 乖候로因하야 各種大會에 가친影響도 크거니와 不良한『컨디슌』을 무릅쓰고 惡戰苦鬪하야 日光과 諏訪湖에서 全日本의王座를死守하고잇는 東京평긘軍의 猛躍을 筆頭로 第六回京平對抗(42對37로京城勝) 第二回都市對抗(31點을最高位로 江界連覇) 第三回女子氷上大會 평긘軍招聘戰 (京城과平壤서평긘連勝) 朝滿對抗 (49對42로朝鮮勝) 等各種大會에서 作成된 記錄을 基準으로삼아 例年과가티 朝鮮氷上十傑表를編纂發表하는바이다 今씨-슨中에 가장우리의注目을이끄는것은『無盡藏의金』이란 綽名을듯는 金正淵君이保持한 全日本選手權을 驍將崔龍振君이 빼앗슨것이다 그리고 記錄上으로보아 昨年에比하야 實力이低下한 感이적지안타【高鳳梧 記】

五百米 (世界最高記錄42秒5米國부츠選手)

【順位】	【氏名】	【所屬】	【記錄】	【링크名】	【競技會名】
1	李聖德	(평긘)	45秒3	日光	全日本學生
2	崔龍振	(同上)	46秒F	同上	同上
3	許景日	(同上)	46秒3	同上	同上
3	朴潤哲	(撫順)	46秒3	鴨綠江	朝滿對抗
5	崔炅洙	(延專)	47秒2	清涼里	京平對抗
6	金基滿	(義州)	47秒6	鴨綠江	朝滿對抗
7	金正淵	(평긘)	47秒9	日光	全日本選手權
8	李仁源	(平壤)	48秒F	鴨綠江	朝滿對抗
8	金聖奎	(安州)	48秒F	清涼里	都市對抗
10	鄭庚彦	(京城)	48秒7	同上	同上

千五百米 (世界最高記錄2分17秒4諾威매리-센選手)

【順位】	【氏名】	【所屬】	【記錄】	【링크名】	【競技會名】
1	金正淵	(평긘)	2分27秒1	日光	全日本學生
2	崔龍振	(同上)	2分28秒2	同上	同上
3	張祐植	(同上)	2分28秒4	同上	同上
4	李聖德	(同上)	2分29秒	同上	同上
5	崔炅洙	(延專)	2分33秒1	清涼里	都市對抗
6	李仁源	(平壤)	2分33秒2	同上	同上
7	朴潤哲	(撫順)	2分34秒5	鴨綠江	朝滿對抗
8	金基滿	(義州)	2分35秒6	清涼里	都市對抗
9	尹明洙	(江界)	2分39秒2	同上	同上
10	安重熙	(평긘)	2分42秒	同上	평긘招聘

五千米 (世界最高記錄8分17秒4諾威비랑그르-드)

【順位】	【氏名】	【所屬】	【記錄】	【링크名】	【競技會名】
1	金正淵	(평긘)	9分10秒4	諏訪湖	全日本選手權
2	李仁源	(平壤)	9分15秒	鴨綠江	朝滿對抗
3	崔龍振	(평긘)	9分16秒	日光	全日本學生
4	張祐植	(同上)	9分16秒2	同上	同上
5	金基滿	(義州)	9分20秒2	鴨綠江	朝滿對抗
6	朴潤哲	(撫順)	9分36秒	奉天國際	全滿選手權
7	金健會	(新高)	9分43秒3	鴨綠江	朝滿對抗
8	柳得浩	(平壤)	9分49秒5	大同江	평긘招聘戰
9	全承鉉	(平壤)	9分49秒7	同上	同上
10	尹世植	(평긘)	9分58秒2	諏訪湖	全日本選手權

一萬米 (世界最高記錄17分17秒4諾威카-르센選手)

【順位】	【氏名】	【所屬】	【記錄】	【링크名】	【競技會名】
1	金基滿	(義州)	18分57秒8	鴨綠江	朝滿對抗
2	李仁源	(平壤)	19分22秒9	清涼里	京平對抗
3	崔龍振	(평긘)	19分26秒	諏訪湖	全日本選手權
4	全承鉉	(平壤)	19分38秒1	清涼里	京平對抗
5	金正淵	(평긘)	19分39秒	諏訪湖	全日本選手權
6	李聖德	(同上)	19分37秒	日光	全日本學生
7	張祐植	(同上)	19分37秒2	同上	同上
8	金永河	(白狗)	19分15秒	清涼里	京平對抗
9	金健會	(新高)	20分10秒	鴨綠江	朝滿對抗
10	尹世植	(평긘)	20分28秒3	諏訪湖	全日本選手權

女子部

【二百五十米】

1	李令悌	(京保)	38秒7	清涼里	全朝鮮
2	劉海山	(同上)	40秒2	同上	同上
3	金善河	(中保)	42秒1	同上	同上
4	韓奎三	(同德)	42秒2	同上	同上
5	宋仁弘	(京保)	42秒4	同上	同上

【五百米】 (日本最高記錄52秒5奉天龍嬢)世界記錄47秒9

1	孫仁實	(梨專)	1分1秒	鴨綠江	朝滿對抗
2	金柄烈	(女高)	1分7秒	清涼里	朝鮮神宮
3	韓貞順	(同上)	1分8秒8	同上	同上
4	金善河	(中保)	1分20秒	同上	全朝鮮
5	金[illegible]河	(京保)	1分20秒5	同上	同上

【一千米】(日本最高記錄1分51秒2奉天龍嬢)世界記錄1分42秒3

1	孫仁實	(梨專)	2分14秒2	鴨綠江	朝滿對抗
2	李令悌	(京保)	2分16秒	清涼里	全朝鮮
3	劉海山	(同上)	2分30秒2	同上	同上
4	徐吉順	(中保)	3分	同上	同上
5	許菊	(梨專)	3分15秒2	同上	同上

【千五百米】(日本最高記錄2分50秒奉天江島)世界記錄2分40秒

1	孫仁實	(梨專)	3分37秒	清涼里	朝鮮神宮
2	金柄烈	(女高)	3分42秒	同上	同上
3	金麗愛	(梨專)	4分35秒	同上	全朝鮮
4	徐吉順	(中保)	4分36秒	同上	同上

【三千米】(日本最高記錄6分14秒5奉天木谷)世界記錄6分12秒

1	孫仁實	(梨專)	7分51秒	清涼里	朝鮮神宮
2	金柄烈	(女高)	8分8秒5	同上	同上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三菱商事株式會社
朝鮮石油株式會社
特約代理店

謹啓 滿天下諸賢의 泰康하심을 비오며 就白 弊社가 中央都市에 進出한지 滿一年인 今日 基盤의 確固와 內容의 擴充을 보게된것은 全혀 諸賢의 鴻大하신 愛護와 不絕하신 指導督勵의 德이심을 深深感謝하는바입니다 玆에 今般諸賢의 海恩을 조곰이라도 報答하고저하는 意圖에서 價格의 確實公平取引의 迅速을 信條로 새로히 『三菱商事株式會社』製品及 取扱品一切 販賣部를 開設하옵고 諸賢의 下命에 應酬하고저 하오니 倍前의 愛護하심과 指導鞭韃하여 주심을 삼가 비나이다

支配人 日下新

肥料卸商
㊅ 合資會社
大成社平壤出張所
平壤府黃金町三(東拓ビル)
電話二〇五九番

營業科目
內外肥料 穀物貿易 窒素石鹼 石油 藥品 旭味 黃金飴 建築材料

營業所
載寧邑楠亭里一七六 電話一〇七番
信川邑武井里二三二 電話六九番
京城府義州通二ノ八 電話本局一、二三三番

慶南六個郡에 叺生産(二百九十萬五千枚)奬勵

四十萬枚는輸移出하고그餘도契約成立

販路에는別無念慮

【釜山】慶尙南道에서는 昭和十二年中에 道內 咸安 泗川 金海 昌原 密陽 固城等六個郡에 肥料用叺 二百九十萬五千枚를生産하도록 奬勵하기로 方針을決定하고 이미 着手하고잇는데이 生産한叺中 約四十萬枚는 日本內地와 滿洲에 移輸出식히고남어지는 朝鮮窒素會社와 朝鮮農會等과 契約을하얏스므로 販路에는 困難을 當하지안흘터이라고하며 月別奬勵枚數는 大槪다음과갓다고한다

▲一月中 十九萬八千枚▲二月中 卄四萬枚▲三月中 卅萬一千枚▲四月中 卅一萬枚▲五月中 十七萬枚▲六月中 七萬六千枚▲合計 二百九十萬五千枚

織機無料配給 生産叺販賣補助

盈德郡水災民救濟策

【盈德】慶北盈德郡에서는 一般農家에 有利한 副業을 奬勵하여오든바 特히 昨夏의 風水害의罹災窮民에게는 消費로서 食糧을 給與하고 또한 種麥까지 給與하엿스며 其他土木 砂防等工事를 施行하야 勞銀을 取得케하야써 罹災窮民의 救濟케努力하여왓는데 지난二十八日부터 同卅一日까지 四日間 郡內罹災窮民 一百十五戶에 左와如히 叺織講習을 施行한바 特히 叺織機二臺及藁까지 無償給與하고製織한叺에 對하여서는 共同販賣時에 每一枚에 補助二錢式給與하다는데 本郡으로말하면 漁業과 鑛業이 盛하야 叺消費量이相當히 만흐리라고한다

▲盈德八十七戶 ▲寧海二十八戶▲講習場所 盈德 寧海各叺共同販賣場

江西棉花共販抽籤

【江西】江西郡農會에서는 今年에棉花共同販賣를 奬勵키爲하야 昨年九月二十日부터 同年十二月十日까지 期間內에 棉花三十斤以上을 共同販賣한者에게 每三十斤마다 抽籤券一枚式을 주엇섯는데 總枚數가 五千餘枚에 達하엿다하며 抽籤은 來二月七日 江西郡咸從面棉花共販場에서 官民多數立會下에 嚴正히 하리라한다 그런데 賞品은 如左하다

▲一等 斗只一名 ▲二等 鐵器三名 ▲三等 食床十名 ▲四等 小盒三十名 ▲五等 鏟八十名

清州市場取引 近二百四萬圓

【清州】清州邑當局의 調査한바에 依하면 昨年一月부터 同十二月末까지 清州市場에서 取引한 商品高는 二百三萬八千六百八十二圓으로서 前年에 比하여보면 約三十萬圓의 增加를 보이고 잇는데 仔細히 적어보면 다음과갓다

▲農産物 四九五、〇六〇圓 ▲畜産物 四三二、九八八圓 ▲林産物 八二、八八〇圓 ▲工産物 四〇、五〇〇圓 ▲織物類 四三二、〇〇〇圓 ▲鑛産物 九六、〇〇〇圓 ▲經濟用品 一六七、七〇〇圓 ▲産業用品 四三、四六〇圓 ▲其他 一九、八〇〇圓 ▲計二、〇三八、六八二圓

平康郡萱炭俵 製産頗有望

年産五十萬枚에到達

【平康】平康郡高揷面內遂南里、新南里、洗浦里等地의 唯一한特産인 萱은 過去에 別로 所用되지안는것으로 알어섯는데 高揷面長 崔璟壽氏는 萱을 炭俵製作에 試用해본結果 意外에成績이 良好하야 當地 五百農家에 副業으로 推奬해오든바 이것을 徹底的으로 奬勵코저 江原道로부터 二千圓을 借入하야 郡面總動員으로 製産에注力하야 現在製俵數는 年五十萬餘枚에達하고잇다 萱炭俵는 各地로부터 注文이 殺到하야 面共同販賣로 出荷하는바 面農民은 晝夜로製俵에 奔走하고잇서 아프로크게 有望한 事業으로 推奬되고잇다 한다

金浦叺生産激增 一百四十餘萬枚

【金浦】金浦郡當局에서는 數年以來로 一般農家에對하야 農村副業의 大宗인 叺生産을 積極指導한結果 成績이 極히 良好하야 每年産額이 高速度로 增

機船底曳網은 群小業者에恐怖

漁獲激增으로新市場開拓急務

元山特派員 卞龍甲

昭和九年度 咸南의産額은 四億萬尾以上 卽二千萬馱의 巨額에 그金額은 約六百萬圓에 達하리라함은 前記와갓다。이 膨大한 金額은 그大部分이夜間漁獲期間인 十一月十五日로부터 翌年一月十五日까지의約 二個月間에 잡은것이다。吾人은 이 膨大한 數字를 深刻하게 冷情하게 드려다볼때 저옥히 寒心한 暗影을 發見하게되나니 그것은 六百萬圓 巨金의 所有가 가르키는 바機械化 大規模漁業者와 小規模中小漁業者와의 對抗情勢의 擴大로 自然 沒落할 運命에 서잇는 群小明太漁業者의 困境이다。

數百年동안 先祖傳來의 漁場에서 平和한 雰圍氣에싸여漁業을營爲하든 群小延繩釣業者와 刺網、水底網等 一聯의 中小業者는 大正十三年부터 突現한 機船底曳網이라는 海上漁業의 怪物때문에 오래동안 닥거노흔 地盤을餘地업시 蹂躪當하야 그들의 經濟的根據는 破滅에갓갑게되여 沿岸部落民은 이바다의 怪物機船底曳網을反對하야야다고한다 그리하야 때로는 氷點下二十度의 凜寒의 洋上에서 피비린내나는 鮮血에저즌 慘劇을 演出한적도잇섯다고한다 이翕然히數千名業者의生命線의擁護의소리를들은 當局은 大正十五年十二月에不得已 機船底曳網漁業에 禁止의命을나려 不安과 恐怖에싸여잇든 數千中小明太業者에게 安堵를 주엇다。그러나 그安堵도 一瞬間 또다시 底曳網業者들의 必死的인 漁業復活運動에依하야 昭和二年度에條件付로漁業禁止區域을定하야解禁하얏다。이에다시 中小業者의 不安은 再發하게되고 現今은 그對抗力까지喪失하게되여 自然陶汰를 밧게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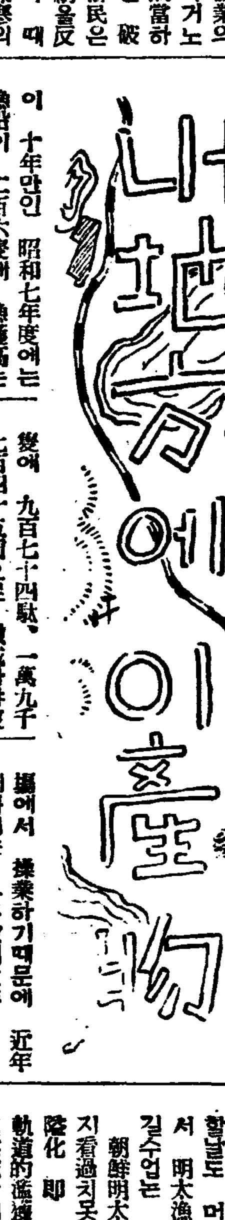
이제 이事實을十個年間明太漁具別統計數字에 비치워보면 大正十二年度에는 刺網漁船數六百五十七隻에 그漁獲高는 二萬九千八百二十六馱 金額 二十一萬九千三百九十三圓이든것이 十年만인 昭和七年度에는 漁船이 二百六隻에 漁獲高는 九千八百九馱 金額四十一萬三千五百五十二圓으로 減少햇스며 延繩은 六百三十五隻에 一萬三千百七十四馱 九十三萬五千八百五十九圓이든것이 四百五十四隻에 九千八百九馱 四十萬七千百五十圓이라는 不振을 示하고잇스며 底角網은 大正十五年度엔 三十九隻에 八百八十一馱 四萬四千圓이든것이 昭和七年度에는 漁船이 百十六隻으로 累增하고 漁獲은 八千六百九十二馱 十八萬五千七百五十四圓으로 激增하얏다。이激增理由는 不明하나 機船底曳網漁業許可가 어려운데 鑑하야 漁獲成績이 稍餘在來式漁具보다 優良한點에서 이底角網漁業으로 集中한듯하다。다음手操網은 大正十二年度에는 百十隻에 一萬二千三百七十五馱 二十三萬九千一百七十五圓이든 것이 昭和七年度에는 四十九隻에 九百七十四馱、一萬九千七百四十五圓으로 激減하야沒落過程을걷고 잇슴을 볼수잇다。이에反하야 機船底曳網은 大正十二年度에는 單一隻이든 것이 昭和七年度에는 四十隻으로 增加하야 그漁獲高는三萬三千三十一馱에八十二萬四十四圓의 巨額에 達하얏다。

다시明太漁獲狀況을 總括的으로보면 大正十二年度에는出漁船이 一千四百九隻이고 그漁獲高는 四萬六千三百七十五馱에 三百二十九萬五千百十八圓이든것이 十年後인 昭和七年度에는 八百六十五隻으로減少하고 漁獲高는 六萬五千百六十馱로 增加하얏스나 金額은 一百八十四萬六千二百四十六圓으로 激減하얏는데 그理由는 機船底曳網新興과 同時에群小漁具等의 萎縮과 沒落에잇는것이다 卽延繩、刺網、底角網忽致網等은 機船底曳網과 混入해서 朝鮮海灣의 限定한漁場에서 操業하기때문에 近年에와서는 그多數明太群을 機船底曳網에게 掠奪當하고 大單漁撈의길을 일케된것과 이에反하야 機船底曳網은漁能力이커서 하로밤사이에十二萬尾卽六十馱價格으로치면二千圓以上을 漁獲할수잇는 事實은 自然 中小明太漁業에 脅威되는 漁場의 實的狹隘를 招來하야 漁業의 萎縮을 가저온것이다 그산證據로는 昭和九年度 咸南漁具別明太漁高에 反映되어 잇스니 總生産額 三百八十萬五千六百四十圓中 機船底曳網漁獲高가 百四十八萬一千七百六十圓에達하야 總額의 約四十%에 相當하다。漁船에잇서 機船底曳網船의 三十三倍가되는 刺網 底角網 延繩 忽致網의 全數一千四百六十隻의 總漁獲高는 거이 機船底曳網四十四隻에 對等하게되엇다

이리하야 朝鮮明太漁業도數千中小漁業者의 沒落과 더부러 近代的漁具使用의 大規模大資本經營者의 獨舞臺로 化할날도 머지안흘것이며 따라서 明太漁業의 獨占化는 숨길수업는 事實로되엇다。

朝鮮明太漁業에잇서 또한가지看過치못할事實은 漁場의陝隘化 卽 機船底曳網船의 無軌道的濫獲에 依한 明太魚의 自然減少의 事實이다。明太濫獲을 防止키爲하야 期限付漁業이 實施되나 그런徹底한 對策이 消極的明太保護策으로는 奏効치못하고 將來 明太魚族의 生殖減退를 齎來하지안흘가念慮된다 同時에 이와關聯하야생각할것은 明太漁場의開拓이다 總督府水産課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咸鏡北道東方約八十浬를中心한 附近一帶의 海區는 魚의 棲息密度로나 漁場面積으로나 從來朝鮮唯一의 大漁場인 朝鮮東海灣의漁場보다 나흐면 나앗지 못하지안흐리라하매 이方面으로 新漁場의開拓을 始作해야될것이다 어떻든新漁場을開拓하는同時明太繁殖策의 强化를圖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朝鮮明太의 生産의 每年增大와함께 念慮하게되는것은消費問題다 消費量 無制한 濫獲은 業者의 收支均衡도 問題려니와 이明太를 圍繞한 數千의製造業者와 明太貿易關係者等一聯의恐慌을가저올것이다 只今乾明太의 消費地는 朝鮮과滿洲뿐으로 그中大部分은 三南이다 이限定된 消費市場을 가지고 年年累增하는 明太의 消化가 問題가 안될수업다 昨年三南一帶를 휩쓴水魔의惡戱는 直接元山明太製造家 貿易商等에게 影響되여再昨年消費額의 半밧게 消費안되엿다한다 이러한事實은 새로운 販路開拓에 業者나 當局이 着眼해야되겟다는 暗示이며 第一着으로 朝鮮明太의 市場을 엿보고 攻勢를取하고잇는 北海道明太의 朝鮮進出은 朝鮮乾明太의 販賣戰線에 一大威脅的인存在가 안될수업다。(此項了)



準戰時體制下의 事業大會社解剖 ⑪

南海電鐵

	舊株	新株(十四)
拂込	五〇圓	二五圓
時價	八九圓	四八圓
前期配當	一割	一割
當期配當	一割	一割
利廻	五分八厘	五分四厘

南海電鐵의去九月期決算의結果는 運轉收入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分內外、電燈電力收入은 六分三厘의增加를 示하엿다。勿論이增收率은 兩者共히 大阪五大電鐵中의最低이나 最近의 當社의 實績으로보아 오히려 이만한增收率을 維持할수잇게되엿다는 相當한努力이 잇섯슬것이다。따라서 利益金은 三百六萬三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八萬四千圓을增加하엿다。따라서 拂込資本에對한利益率도 一割三分九厘로 僅少하나마 一厘의 向上이되엇다。大阪五大電鐵中 一割配當을 行하고잇는것은 當社와阪急의兩社인데 阪急의 九月期決算의 利益率은 一割三分一厘이엇다。그러므로 이點에잇서서는 當社편이 比較的 餘裕가잇다 하겟지마는 周知하는바와가티、阪急은 當社의 境遇와는 反對로、九月期보담도 三月期의 成績이 良好하다。卽 去三月期의 阪急의 利益率은 一割二分六厘이엇다。

그러므로 이點으로보면 當分 阪急과 當社와는 거의 同程度의 收益狀態에 잇다고 할수잇슬터인데 그收益內容으로본 境遇에는 兩社間에 相當한差異가잇다。細密한 計算은 略하더라도 먼저 第一로 驚지안흐면 안될것은 阪急이 有力한 收益部門으로 百貨店業을 가지고잇는데對하야 當社에는 이것이업고 當社現在의收益은 電鐵 電燈電力兼營의 二部門으로부터 거두고 잇다고 할수잇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할것은 當社沿線의 開發은 他社에比하야 이미 顯著히 進展되엇슬뿐 아니라 電鐵 電燈兼共히 增收率은 漸次鈍化할수박게업다는點이다。그나마 他方으로는、競爭線 阪和의進出 阪奈線完成、에 伴하는 빼스、택시의 氾濫으로 增收는 至難한 形便에 잇기때문에 今後의 業績進展은 아모래도 從來와가티 積極的이 될수는 업다고 보인다。

그러타고 勿論當社로서 如斯한 情勢를 부질업시 傍觀하고 잇는것이아니오 여러가지 誘客對策을講究하는一方 압서부터의 懸案이든 南海東線의 難波—天下茶屋間高架往復線工事에도 着手하엿다。이工事가完成되는것은 大體昭和十三年의豫定인바 誘客對策에잇서 이擴張工作에는 相當한期待를두어도 조흘것이다。그러나 이러한期待는 어데까지든지 一時의 刺激的效果以上에 벗어나는것은 못되므로 이것으로써 큰效果를 거둘수잇는것이 아니라는것은 否定키難할것이다。

게다가 十二年度부터는 增稅의壓迫이 내린다。當然의 增稅에依한 稅負擔增加額은 最近의情勢로보아 年約四十七萬圓가량으로 利益率로보아 一分强의壓迫이될것으로 豫想된다。勿論 그러트라도 이때문에 現行配當이 脅威될리가는 念慮는 當分 업슬것으로 보아도 조흘것이다。

平南緬羊增殖計畫

三十萬頭로擴大하고 道에서直接輸入方針

【平壤】南棉北羊의 政策미테서 平南의 緬羊의 大增殖을 圖하기로되어 從來에는 東拓을 通하여 各道는 緬羊을 購入든것을 明年度부터는 道가 直接國庫補助를어더 濠洲에서 輸入하기로되엇고 東拓의 輸入分과그他方法에 依하여 道內에 緬羊增殖을 强化하게되엇다 이때문에 平南에서는 十萬頭를 計畫햇든것을 一躍三十萬頭로 計畫을變更하기로되어 總督府農務課와 交涉하기로되엇다

木浦地方의 米買上格差

【木浦】政府에서 買上하는 日本內地米와朝鮮米七十萬石은 오는五日부터 申込을 밧게되엇는바 當地方의 産米買上格差는다음과 가리決定하엿다(單位叺)

玄米=平格四等을標準으로 五等十二錢下 三等十二錢上 二等二十錢上 一等二十八錢上 또多摩錦은 三十二錢 中生神力은二十六錢上으로하엿다 그리고群山에서 買上하는 玄米로 江景에서 引受하게되는것은 五錢 麗水는 四錢의 控除를 하기로되엿다

正租=平等二等을 標準으로三等十錢下 一等十錢上 多摩錦二十錢 中生神力十錢上으로하고玄米同樣으로 江景은四錢 麗水는 三錢을 控除한다고 한다

慶北漁組聯에서 漁村開發에進出

【大邱】慶尙北道의 漁業組合聯合會의 昭和十二年度豫算은 空前의 膨脹을 보엿다 一般豫算에잇서서는 從前과 大差가업서 一萬八千餘圓이나 事業豫算은 實로 二百二萬餘圓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二倍膨脹이라한다

新興事業은 從來等閑視하엿든 漁村振興施設의 充實을 圖하야 優良漁船建造補助 魚族蕃殖 保護施設等의 漁村開發에 積極的으로 進出한다고한다

그리고 聯合會에서는 基礎가 今番鞏固해젓스므로 組合積立金도 半減되엿다고한다

黃海道棉花共販 二十五萬七千圓

【海州】黃海道의 棉花共同販賣는 一月三十日에 맛치엇는데그 總高는 百六十六萬七千斤에 價額二十五萬七千圓이다

이것을 前年度統計에 比하면 五十萬斤의增加를 示하야 態異的增加를 示하고잇다

咸北鰮油탕크 城津、雄基에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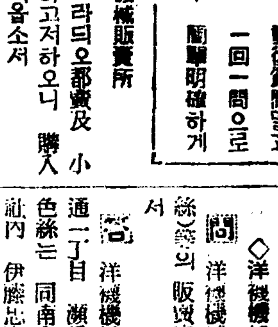
各一千噸容量의큰것

【淸津】昭和十一年度豫算에計上하야 아즉實現을 보지못한 咸北鰮油肥水産組合의 鰮油탕크는 解凍을 기다려 工事에着手하기로決定되얏다

設置할 場所는 城津과 雄基의 두곳으로 各一千噸容量으로 總工費約五萬圓을 要한다고한다

畜産加工會社를 滿鐵서設立計畫

【新京發商通】滿洲의 畜産加工業은 原料가 豐富함에 不拘하고 現在로서는 未發達의情勢에 잇서 滿鐵에서는 그勃興을爲하야 昨年六月 北海道農場의權威 獨人칼·레-만氏를 招聘하야同氏를中心으로 滿鐵産業部에서 加工品會社設立에 關하야種種研究中이든바 이지음 成案을어덧스므로 目下北海道에 잇는레-만氏의檢討를하고 資本金五十萬圓으로 哈爾賓에工場을 新設하기로되엇다 敷地其他에 對하야서는 目下秘密에 付하고잇스나 製品은 豚肉、牛肉의 鑵詰베-콘·乳製品等이다



質疑는一回一問으로 簡單明瞭하게

◇라듸오機械販賣所

問 小生이 라듸오部賣及小賣商을 經營하고저하오니 購入處를 下敎하시옵소서 (平壤府寺洞里 一讀者)

答 京城府岡崎町 株式會社松下無線製作所 京城出張所、同本町二丁目 七歐無線電氣商會 京城出張所等이 잇습니다

◇洋襪機械販賣所

問 洋襪機械 洋襪原料(染色絲)等의 販賣店을 下敎하시압소서 (三浪津一讀者)

答 洋襪機械는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瀨戶商店 洋襪原料染色絲는 同南大門通二丁目 共益社內 伊藤忠商事會社出張所에問議하시오

▲毛系 昨年 濠洲의緬羊飼育不足으로 死多數로 輸入原毛의 品不足을 보혼에 今般도 十二、一月의緬羊盛食期에 旱魃이 繼續되야羊毛界에 一大暗影을 投하고잇는바 이박게圓爲替軟調와 一般物價高에도 作用되야 毛絲價는强堅하야 그의標準絲인 五〇手前週三圓三十錢에 比하야 三圓三十五錢으로 五錢가량을올럿스나 一年中 가장 그需要가만흔 冬期毛物의 需要는 來月中旬頃으로써 終了될것으로 이는 重要한 牽制材料로 六日 京城市內의 實際 毛絲價는左表와가티保合이다

피-하이브	封度	四、八〇
스키-	同	四、三〇
아르라스	同	四、二〇
문라이트	同	三、一〇
올린픽	同	三、二〇
파리絹카리미	同	三、二〇
極太	同	二、八〇
優太	同	三、五〇
中細	同	三、七〇
極細	同	四、〇〇
스코츠	同	二、七〇
크로쉐트	同	三、六〇
루-프얀	同	四、〇〇

▲紙物 天井不知로 昂騰하든 紙物價도 新內閣의 組閣으로 中止 或은 反落을 示하고잇는此際 紙物만은 依然大幅의 飛騰을 繼行하고잇다 그原因은 世界的原料饑饉과 爲替管理에 因한 外國原料輸入杜絕 나아가서는 製紙會社間의 聯合統制等好條件을 具備하고잇는만큼 新內閣의 緩和工作만으로는 此暴騰을 止키不能할것으로 明確한 일이다 積極的으로 製紙原料의 新源泉을 發見하거나 消極的으로는 製紙會社間의 統制의 破綻을 生하기前에는 時勢의 軟化는 期待不能할뿐외라 現品缺乏 時勢의繼續的暴騰은 市場을 一層混沌狀態로 誘導하고잇다 左에 揭한時價도 自然暫定的時勢요 아프로 더욱昂騰할것으로 보이는바 六日京城市勢는 如左하다。

◆洋紙 ▲王子製紙品		
模造紙	一听	[illegible]
B 〃	〃	[illegible]
色 〃	〃	[illegible]
片艶 〃	〃	[illegible]
上質印刷紙	〃	[illegible]
中質印刷紙	〃	[illegible]
下質印刷紙	〃	[illegible]
更質印刷紙	〃	[illegible]
포스타-用紙	〃	[illegible]
畵用紙	〃	[illegible]
帳簿紙	〃	一、〇〇
色帳簿紙	〃	一、三〇
아-트紙	〃	一、三〇
色아-트紙	〃	一、四〇
마닐라보-르-白	〃	一、四〇
吸取紙	〃	一、三〇
하토론紙	〃	一、〇〇
筋入하토론紙茶	一連	八、〇〇
色太筋하토론紙	〃	八、五〇
本四로-루	〃	五、三〇
色本四로-루	〃	五、四〇
本四로-루三三判	〃	四、三〇
更紙	〃	五、五〇
〃苦	〃	六、三〇
〃兩面罫紙用	〃	六、五〇
〃苦菊判	〃	四、三〇
色模造紙三〇听	〃	五、〇〇
〃八〇听	〃	六、五〇
木炭紙	一連	五、五〇
레-터-페이퍼一五〇听	〃	五、五〇
色레-터-페이퍼	一連	六、〇〇
硫酸紙	〃	五、〇〇
色 〃	〃	五、五〇
白露紙(複紙)一八听	一梱三〇入	六〇、〇〇
〃 二五听	一梱二〇入	三八、〇〇
▲社外品		
模造紙	一斤	一、一六
B 〃	〃	一、一五
色 〃	〃	一、六〇
片艶 〃	〃	一、五五
上質印刷紙	〃	一、七〇
中質 〃	〃	一、六〇
下質 〃	〃	一、四〇
포스타-用紙	〃	一、七〇
畵用紙	〃	一、五五
帳簿紙	〃	一、六〇
色 〃	〃	一、〇〇
아-트紙	〃	一、三〇
色아-트紙	〃	一、三〇
하토론紙	〃	一、八五
筋入하토론紙茶	一連	七、八〇
本四로-루	〃	五、〇〇
色本四로-루	〃	五、三〇
보-루薄物	一束	三、七五
〃厚物	〃	四、一五
茶보-루	〃	五、〇〇
布雲크로-스A	一本	八、〇〇
〃 B	〃	七、五〇
色 〃	〃	一三、〇〇
紙 〃	一連	一一、〇〇
並 天井紙十二碼一五〇入	一個	三三、〇〇
〃 八碼二〇〇入	一個	二〇、〇〇
改良馬糞紙(各束入一俵)		一八、〇〇
◆和紙(美濃 四締)		
純因州手漉	四貫一丸	二八、〇〇
純 漉	十貫	[illegible]
마因代生漉	四貫	[illegible]
닐라生漉	十貫	[illegible]
手漉잉크止	〃	[illegible]
機械漉잉크止美濃	十貫一丸	[illegible]
팔프잉크止	〃	一九、〇〇
마닐라機械漉A質	四貫六百匁付	二四、五〇
〃 B質	〃	[illegible]
伊豫厚美濃	十貫一丸	[illegible]
薄葉(機械) 上	一丸	[illegible]
〃 中	〃	[illegible]
〃 下	〃	一八、〇〇
팔프(機械)(二千枚)	六貫一丸	一九、〇〇
洋紙美濃上(二千枚)	一丸	一五、五〇
洋紙下(更紙)	四貫一丸	一二、〇〇
白鷄로-루	四貫一丸	七、六〇
◆半紙(六締)		
純因州手漉	四貫	四〇、〇〇
因代 〃	〃	三七、〇〇
手漉잉크止	九貫	三三、〇〇
機械漉 〃	〃	三一、〇〇
팔프잉크止	一丸	一八、〇〇
마닐라機械A漉質	三貫九百匁付	二〇、五〇
〃 B 〃	〃	二〇、〇〇
마닐라薄葉 上	〃	二八、〇〇
〃 中	〃	一九、〇〇
同 下	〃	一七、〇〇
팔프 (二千枚)		一〇、五〇
洋紙 上		一六、八〇
同 更紙		一二、五〇
白鷄로-루		八、七〇

【鮮一紙物株式會社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八七三	金銀鑛	平北熙川郡西面	十二月三十一日	京城府南大門通 代表者 富田儀三 / 熙川郡西面 渡邊榮治
一三八七二	金銀鑛	黃海延白郡海月面	十二月三十一日	開城府滿月町 金志河
一三八七四	金銀鑛	忠南保寧郡大川面	十二月三十一日	京城府冷泉町 代表者 金泰源 / 平原郡順安面 李致淳 / 京城府太平通 李枝敎 / 忠州郡山尺面 金鳳鎬
一三八七五	金銀鑛	江原旌善郡旌善面	十二月三十一日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 江原鑛業株式會社
一三八七六	金銀鑛	忠南論山郡豆磨面 公州郡鷄龍面反浦面	十二月三十一日	東京市豐島區池袋 桑原退介
一三八七七	金銀鑛	平北慈城郡三豐面	十二月三十一日	慈城郡三豐面 金日宣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七九九五	江原平康郡楡津面 高揷面	一月二十七日	東京市麴町區 三菱鑛業株式會社
六九五四	忠北永同郡梅谷面 黃金面	十二月二十八日	永同郡楊江面 金容釆
八七八六	同	同	同
一〇三八三	忠北永同郡龍山面 上村面 全北茂朱郡雪川面	十二月二十八日	東京市小石川區 野間清治 / 京城府本町 代表者 建部弘
一三七九五	慶北慶州郡山內面	十二月二十八日	釜山府壽町 山內忠市
一一八九一	慶南山清郡生草面	十二月二十八日	釜山府谷町 代表者 古思九郎 / 同草場町 增永市松
一〇四二五	江原高城郡新北面	十二月二十八日	京城府內資町 代表者 林泰植 / 同桂洞町 張月光 / 同三坂通 宋權末 島崎作
一二六二六	忠北忠州郡老隱面	十二月三十一日	京城府松平町 代表者 金相模 / 同義州通一丁目 徐丙協 / 同林町 閔斗煥 金裕
八六四九	忠南扶餘郡窺岩面	十二月三十一日	大田府本町 青柳八百造
一二五一八	黃海遂安郡梧洞面	十二月三十一日	京城府松町 代表者 卞基東 / 平壤府竹川里 金能秀 / 遂安郡水口面 趙容均
一三七四六	咸南北靑郡新昌面 居山面	十二月二十八日	鏡城郡朱南面 代表者 細田元吉 / 清津府朝日町 四元嘉平 / 北靑郡北靑邑 韓國鍵 / 成興府萬歲町 韓基邦
一三三四三	忠北沃川郡青城面 安南面	十二月三十一日	京城府貞洞町 代表者 中條平五郎 / 京城府漢江通 因幡乙松
九六八〇	全南順天郡雙巖面	同	麗水郡麗水邑 朝鮮鑛山株式會社
六四八〇	慶南統營郡山陽面	同	統營郡山陽面 木戶正吉
一〇九八九	江原伊川郡龍浦面	同	寧邊郡寧邊面 代表者 金孝哲 / 伊川郡板橋面 玄柄夏 / 同樂壤面 桂枝鳳 / 京城府南大門通 宋東秀
一三三五三	平南寧遠郡溫和面	同	足利市助戶町 代表者 仲村淺七 / 京城府松月町 寺本傳之助 / 德川郡德川面 朴胤善
一二六五〇	咸南定平郡長原面	同	定平郡長原面 代表者 李基英 / 同 金利先 / 同 朴基鉦 / 安邊郡瑞谷面 金昌燮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七四三	平北碧潼郡碧潼面	十二月二十八日	文昌郁任意脫退함
一三三三五	江原洪川郡北方面 洪川面	同	山名松太郎任意脫退함
一二三八八	忠南舒川郡文山面	十二月二十八日	金燕煥任意脫退함
一一一九九	慶南陜川郡龍洲面 鳳山面	同	廉希國任意脫退함
一二五四四	咸南甲山郡雲興面	同	崔承喜任意脫退함
一二五四四	咸南甲山郡雲興面	同	小平亮二任意脫退함
一〇七四三	平北碧潼郡碧潼面	十二月二十八日	姜斗永任意脫退함
八八五八	江原寧越郡兩邊面 水周面	十二月二十八日	鮎澤常義任意脫退함
一二六一五	京畿高陽郡恩平面	十二月三十一日	趙俊恒任意脫退함
九六二四	全北井邑郡山外面	十二月三十一日	金周珊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三五六	忠北永同郡龍山面 深川面	十二月二十八日	廢業
九九四九	黃海金川郡好賢面	十二月二十八日	廢業
九六三九	江原洪川郡瑞石面	十二月二十八日	廢業
一〇七八二	江原伊川郡山內面	十二月三十一日	廢業
一一七四三	江原橫城郡公根面	十二月二十八日	廢業
一一四五三	咸南安邊郡新茅面	十二月二十八日	廢業
八八九六	忠南洪城郡金馬面 禮山郡光時面	十二月三十一日	廢業
一一三一二	平北慈城郡慈城面	十二月三十一日	廢業
一一三一三	同梨坪面	同	廢業
一一二四一	同慈城面	同	廢業
一二六一七	同	同	廢業
九〇〇六	江原春川郡北山面	十二月三十一日	廢業
九二三八	咸南北靑郡泥谷面	十二月三十一日	廢業
一一一七六	同	同	廢業
一一二四五	同	同	廢業
一一九一五	同	同	廢業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六一五	京畿高陽郡恩平面	十二月卅一日	代表者를金周珊으로改定

雙虹舞 【406】

方仁根 作 / 金奎澤 畵

죄와벌 (一)

은명의 어머니는 은명이나간 후에 천봉이업고 재웟다。달빗치 가득한마당에서 거닐며 할머니는 손자를업고 그궁둥이를 토닥치고 흔들며

『자장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우리아가 금자동이 옥자동이 잘도잔다 우리애기……』

이런 자장가를 부르며 재웟다 천봉은 달을처다보며 꿰다고흔자 중얼거리드니 할머니등에얼굴을박고 새새자는것이엇다。

『아이그 우리 착한새기가 벌서잠에 들엇나』하고 할머니는방으로들어가누이고 깨지못하게손으로 억개와가슴을 꼭눌러주엇다。한참후에 천봉이 잠이폭든것을본 할머니는 이러나서압흔허리를펴고 다시안저 담배를피어물엇다。

갑작히 쏘낙이가 쏘다젓다。

할머니는 깜짝놀래어 박그로나가비를마즈며 장독대에 뚜겅을덥고 대강집안을 치운뒤에방으로 들어와서

『아이그 아이어미가 동산에갓다가 비를맛겟네』하고 걱정을하엿다。비는억수로 퍼붓고은명은 오지아니하엿다。그는점점초조하고 염려스러웟다。

『뭘 그곤처 뉘집으로가서 비를 피하겟지 태식씨집이 고대니까 아마거기들어간게지』

이러케 생각하고 안심하엿다 그러나 비는점점더쏘다지고 시간이 펵오래되어도 은명은 오지아니하엿다。

『아이구 이것이 또 산속에서 비를 만낫스면 어쩌나 개골을이 범창을하는데……』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가슴은 탈대로탓다。

『비는웬비가 그리갑작히 오누 쏘낙이도 한출곰하고 끄칠게지 저러케만히 온담 그런데이애가 대관절어떠케 됏슬가』

그는담배만 몃대이지 연거퍼 먹으며 귀를기우리고 잇섯다。

『글세 기에도 방정이지 내등박절 안나가다가 오늘따아 왜 나가서 이러케 어미속을 태우노』

점점밤이 깁흐니 조바심이나고 별별고약한 생각이 다나서 견딜수가업섯다。

『그러니 비나끄처야 어딀 차저가본다지—그리고 천봉이혼자두고 갈수도업고 칠속상해』

나종엔 화가나서 단뱃대로재더리만 땅땅 두드리엇다。그런데갑작히웅아-하고천봉이깨여서울엇다。할머니는 얼른가까히가서 다독다독해주엇다。그러나천봉은 울엇다。할수업시 안고오줌을 뉘엇다。

『쉬-쉬-』하고 할머니는 소리치니 천봉은 울면서 오줌을 쭈르르쌋다。오줌을 뉘면 잘울지안는데 자지안코 또울어대엇다。할머니는 천봉을업엇다 그래도 우는고로 이번에는 안고 젓을 물려주엇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쭈굴쭈굴한젓을 물고 빨더니 젓도 아니나고 갑작도 이상하니까 눈을번쩍뜨고 보더니 어머니가 아닌것을알고 볼이 부은것처럼 떼구르루하고 울엇다。할머니는 안젓다 이러낫다 달랫다 소리첫다 업엇다 나려노앗다 땀을 흘리며 애를 썻다。그래도 천봉은 점점더 크게울고 마치 쏘낙비처럼 끄칠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엇다。

할머니는 속이타서 견딜수가업섯다。그래서 밝글내다보니어느새 비는끗치고 하늘이 번듯스럽게도맑게 개엿다。

『아이그머니 어느새 끄첫서—저러케 개엿는데 이게 안올젠 암만해도 무슨일이난게야』

은명의 어머니는 우는천봉을들쳐업고 뒷동산길로 올라갓다。밤은깁허 고요하엿다 몃집에가서 물어보아도 모른다고한다。맨나종에 태식의집으로가니 경주가나오며

『웬일이서요』하고 물엇다。

『우리딸 여기안왓소』

『아니에요』

『아이구 그럼 큰일낫군』

『왜요?』

『글세 그애가 저녁먹고 뒷동산으로 바람쐬러 나갓는데 그동안 쏘낙이가 퍼붓엇는데도 지금것 안들어오니 이게무슨변괴가낫지 무사할수잇나요』

『그럼 무슨일이 생긴게로군요 혼자나갓서요』

『혼자나갓지요 제일에 아이가 이러케 울어서큰일낫는데요 아이도 유심히온딴말요—참 댁에 서방님은 어데가섯소』

『우리집에서도 잠간다녀온다는게 여직것 안와서 걱정중이에요 참말 이상해요』

경주의머리에는 이상한 생각이 번쩍이러나고 가슴이 뚝금해젓다。